朝鮮日報

今日四面

購讀料 一個月 八拾錢 ... 廣告料 ...
發行所 朝鮮日報社
發行兼編輯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時評

小作權의賣買

× 全南順天郡地主朴某는 一定한金額에小作權을 賣買하얏다한다 이러한非理가公公然히行한다는것은實로言語道斷이다

× 元來小作制度가獨立된動機로말하면 여러가지의形式이잇는터이나 大槪는土地가私有化하게되는同時에 一部의社會階級에 土地가兼併되고 따러土地를所有치못한人民群이發生하게된것이다 그리하야 土地를所有치못하고 農業生産의技術外에 다른生産技術을가지지못한 人民群이 土地所有階級에게 一定한面積의土地를借하야 耕作하고 一定한量의生産物을土地所有者에게提供하게되엿다

× 이와가티小作人과地主의關係가成立되야 小作人은地主의土地를耕作하야 自己의生活을維持하여오게되엿다 그러나地主의土地에對한權利慾利潤慾이變圖되고 土地의所有權이頻頻히 移轉됨을 따러小作人의 生活資料는 耕作權讓得에對한賄賂의形式으로 或은 追徵되는 小作料의名目으로 그大部分이 搾取되고 그들은生活의不安을늣기게되엿다 이와가튼末弊가助長됨을따러 小作問題가惹起되야 小作人들이團結로써地主를對抗하는運動의指導原理는 最小限度의自己權利의奪還或은根本的權利의主張等 正義性을가지게된것이다

× 그런데 小作權을미리一定한金額에賣買하야 自利를貪하는것은 所有權의神聖을濫用하야互利를圖謀하는者이니 社會道德上容貸못할罪惡임은勿論이려니와 이에對하야法律이無關心하는것은豈不駭怪耶?

露中會議의絕望

× 昨年에日本의機先을制하야· 疾風迅雷的으로王正廷와顧維均等의明眼快手에依하야 不日之內에成立되야 外交上一大功어런贊賀를受하는中露協定은 具體的協定을보기前에不意의動亂이惹起되야 于今寧日이無히渡了한結果 同會議籌辦所와同籌辦이有名無實의狀態임으로 近近廢止되리라한다

× 이것은 中國自體생반아니라 極東大局上重大問題이라할이것다 그러나幽靈政府의內閣이잇는段政府에依하야 同會議가完成된다하드래도 來頭의效果如何가疑問일것이다 現下全中國의排外運動이爆發되고 赤露의援이影照하는것을보면 露中會議는비록絕望이된다하드래도 決코中露關係의前途를悲觀할理由는毫末도無한가한다

日、英領事館에衝火
示威群衆氣勢頗히猛烈

(上海十三日發) 九江에잇는日本及英國領事館은示威群衆에게衝火를當하얏다 그런데前日本領事江戶仙太郎氏는最近歸國하얏고蕪湖領事大和久義郎氏가轉任되지幾日이되지못한中이더라

兩領事館共히完全破壞

(上海十三日發) 十三日午前十一時九江日本領事館은 群衆에게襲擊되야完全히破壞되얏다 그러나領事館員은全部無事하며 又英國領事館도群衆에게完全히破壞되얏스며、臺灣銀行도襲擊을受한지라 此로因하야日本驅逐艦에서는陸戰隊五十名이上陸하야市內의警備에當하얏더라

日淸汽船도全燒

(上海十四日發) 十三日朝十一時에數千의群衆은九江에잇는日英領事館을襲擊하야英領事館에放火하엿스나直時消止되는同時에同地日淸汽船에도放火하야同社는全燒되엿다 碇泊中인日本驅逐艦으로부터陸戰隊를上陸식혀鎭壓에努力하는中이더라

上海罷業依然繼續
一日損害三百萬元

(上海十三日發) 總罷業의形勢는毫末도變化함이업스며總商會長의調査에依하면上海罷業의損害는一日三百萬元으로罷業最初부터十二日까지의損害額은四千萬元에達한다한다寄附金은相當히多하야馬尼剌總商會로부터一萬元在日華商總會로부터九千六百元을續續送來하는中이더라

日人紡績畢竟全滅
鐘紡職工도遂히罷業

(上海十三日發) 最後까지남어잇는鐘紡職工도드듸여十三日로부터罷業하엿는故로上海의日人紡績은畢竟全滅되엿다右는十二日上海勞働組合으로부터罷業職工의手當으로一人一圓式을支給하기때문에職工側에서는罷業資金이잇는줄노推斷하고此에參加한것이더라

罷業團氣勢昂騰
張軍上海到着과同時에

(上海十四日發) 本日張學良氏及奉天軍의到着을因하야學生勞働團體는더욱氣勢를加한模樣인故로十四日로부터는租界內의防備를一層嚴重히하라고各方面에命令을下하엿더라

經濟絕交斷行은
十三日로부터
執政府에決議案報告

(北京十三日發) 北京總商會는十二日會議에서北京全市의罷業斷行을決議하고更히十三日에會議를開하고左와如한宣言書를發表하얏더라 『上海事件發生以來外人이中國人을殺害한事는常軌를逸한것이다 中國政府는幾次이나抗議하얏슴에不拘하고外人이毫末도自己의罪를悔悟함이업는것은條理로써解決치못할지라 吾等商人은憤激함을마지못하겟기로今玆會議한結果日英兩國과의經濟斷行을決議하야卽日各方面一齊히日英兩國과의取引을停止하고又金을醵集하야上海當局에送하야今回의罷業失業者를救恤할지며尙且極力으로適當한方法을講하는바이라하고總商會는右決議後直히大示威運動에移한四千名의群衆은日英經濟絕交宣言書를撒布하면서行列을지어外交部、執政府에至하야十三日부터經濟絕交를斷行하는旨를報告하고同時에上海事件에對하야嚴重交涉하기를請願하얏더라

戶別訪問
罷業勸告
日英人使用人에

(北京十三日發) 十五日의全市에亘한罷業에日、英人商店과會社에使用되는中國人을參加식히기爲하야罷業委員은戶別訪問을하면서此等中國人을勸誘하야永久히日英의雇人되지말나고勸告하는中이며一般歐米人은英人과毛色이類似하기때문에誤解되여買物等을拒絕當하는等困難이甚히다더라

海員罷業은
自十五日斷行

(廣東十二日發) 上海의全國海員公會決議에基하야香港廣東의外國船乘組員은來十五日부터總罷業을斷行하기로決定하얏고尙且香港政廳은同船舶의九割을占한英國船의大打擊을考慮하는中인바罷業防止의方法은업는듯하다더라

漢口日人殺傷과
日本公使의抗議

(北京十三日發) 漢口에서發生된日人殺傷事件에就하야該地領事團會議를開하고本件調査에著手하얏는데此의結果日本公使는外交部에對하야嚴重한抗議를提出하얏다더라

英公使에
外交部抗議

(北京十三日發) 外交總長은十三日夕英國代理公使에게漢口事件에關하야嚴重한抗議를提出하얏더라

佛巡洋艦
上海에急航

(巴里十三日發) 諸新聞의報道에依하면佛國巡洋艦『쥬유두미수레!』는十四日上海로向하야急航하리라더라

武漢形勢도刻刻惡化
集合群衆은終不解散

(漢口十三日發) 十三日도武昌漢口에群衆은解散치안코中國人部落은中國兵으로各租界는陸戰隊와義勇隊로防備하며十三日로부터陸戰隊도上陸하야警備의任에當하는中인故로目下의形便으로는日本租界는安全하나形勢는刻刻惡化하는中인故로樂觀을不許한다더라

戰隊及義勇隊로써警戒하는中이다中國部落在住日人은十三日全部日本租界로撤去하고租界內는

資本主義反抗에
祝意를表하는激勵電報

(倫敦十三日發) 全英國트레드유니온理事會總會는北京의中國勞働委員에게對하야中國勞働者가國際的資本主義에對抗하야어대까지던지力爭하기를決意함에就하야祝意를表한다고激勵의電報를發하얏더라

不賣同盟解除條件
雙方의意見終不一致

(上海十三日發) 北京政府로부터上海事件을調査하기爲하야特派된蔡、齊兩氏는上海領事團과非公式으로交涉을進하는中인데中國側은不賣同盟解除의條件으로濼口警察署長『에파슨』氏(南京路事件當時에發砲를命한當面의人物)의免職을主張하고領事團側은此를拒絕하야彼我의意見이一致치못하고交涉은澁滯된狀態이다中國側은此狀況을北京政府에報告하야訓令을請하얏는데問題의解決은容易치안한듯하더라

日本租界는安全하나形勢는刻刻惡化하는中인故로樂觀을不許한다더라

廣東再歸革軍
全市는赤닉라이軍이充滿
벌서排日宣傳紙도撒布

(廣東十三日發) 廣東은再次國民軍의手에歸하야全市는赤色『닉라이』의革命軍으로充하얏고市外에는數十의雲南兵의死體가散在하얏는데벌서排日宣傳의『비라』가撒布되얏더라

雲南軍武裝解除
楊希閔은香港으로逃走
廣東實權은政府軍에

(廣東十三日發) 雲南軍은全部武裝解除를當하고楊希閔은香港으로逃走하엿는데廣東政府는初年의目的을達하야完全히廣東의實權을掌握하엿다 胡漢民、汪兆銘、廖仲愷等은벌서軍艦으로大本營에入하야善後處置에當하는中이더라

上海事件과廣東政府
此際에根本的解決하자宣言

(廣東十二日發) 楊希閔에게被逐되야黃浦에避難中인廣東政府는上海事件에對하야賠償懲罰謝罪等의末節에拘碍치아니하고此機會로써不平等條約廢止、租界回收의根本的解決을圖치아니면不可하다宣言하얏더라

今後活動은排外로
雲南軍全滅의餘威

(廣東十三日發) 廣東政府는雲南軍全滅의餘威를驅하야直時猛烈한排外運動을轉할것이分明한데第二上海動亂을演출할는지도難知이며廣東政府와中國共產黨並勞農露西亞와의結合은漸漸緊密하게되겟고今後廣東政府의活動等은實로注目할만한것이잇겟다더라

理事會의最後決定

(제네바十二日發) 『제네바』國際聯盟理事會는佛國代表『파ー루봉쿠ー르』氏의波蘭과『단치히』自由市間의爭議解決에關한報告를承認하고十一日午前에閉會하얏다右解決은『단치히』港에잇는波蘭郵便의歸屬問題에止치아니하고港灣에서必要한施設의利用權問題、境界線의問題에도決定을與하얏더라

佛新豫算
緊縮에最大努力

(파리十二日發) 佛國財政長官『카이요』氏는本日閣議에서閣員에對하야新豫算編成에際하야國庫의支出을緊縮함에는最大의努力을다하야달라는希望에閣議는滿場異議가업시右目的을實現함에援助를不惜하기로決定하얏더라

治安維持警告
張作霖對各縣知事

(奉天電) 王奉天省長은張作霖氏代理의名義로十二日各縣知事에게對하야左의警告를發하엿더라 上海學生의聲援運動이激烈하야各縣에宣傳分子가潛入하야治安을紊亂할憂慮가잇슨즉各縣知事는警察署長에게嚴戒하야嚴重取締할지어다

奉天城內는
宛然戒嚴令狀態

(奉天電) 奉天城內는學生의運動惡化를豫防하야此를未然에防止코자努力中인바戒嚴令治下와如한警戒狀態가되야잇더라

警戒司令에
吳俊陞氏就任

(奉天十四日發)·奉天省城內警戒總司令으로吳俊陞氏가任命되여氏는本日着奉直時로警戒의任에就하엿스며各縣下에도嚴重戒嚴을命하엿더라

張氏歸奉은
本月末頃

(奉天十四日發) 張作霖에召電에接하야天津을赴하엿던松井少將은十三日歸奉하엿는데其談에依하면張氏는旣히要件이終了되여歸奉하라하는際에上海事件이起하야京津間에도飛火가잇는故로張氏는學生의背後에는赤露의赤手가動하야彼等은中國과日英間을離間코자하는奸策의有함을看破하엿는故로段執政과協議하야急히鎭壓手段을取하기로하엿다하며張氏의歸奉은本月末 ― 아니면更히遲延될는지도알수업다 이되겟고事件은推移如何에依하야 云云

田中駐露日使
來三十日東京發

(東京電) 新任田中駐露大使는今月三十日午前八時四十五分發特急으로東京發赴任의途에登할터인데酒句、杉下兩書記官도同行한다더라

政局前途
展開有望?
注目할兩總裁會見

(東京電) 加藤首相과田中政友會總裁는... 的으로協議하얏슴은이오內外諸般問題에就하야는前般意見을交換한바가업것는데田中總裁는今回九州旅行으로부터歸京한後豫定이더라 次回會見에서는[illegible]自己의抱負한바를外諸政策卽對中、對露、[illegible]하야內政問題로는財政、整理、敎育等에諸問題에[illegible]方針을定하야[illegible]閣議를求하야共히[illegible]對하야도國際가[illegible]바右會見한結果如何[illegible]政界의協調는勿論政局[illegible]을左右함에至할重大問題가[illegible]나來二十日後에政局은最히注目할만하다看做되는中이더라

鐵筆寫眞 投稿歡迎

비로소、舌의存在를、認定하게되엿다(日文紙轉載)

地租移讓은
保留키로決定

(東京電) 十三日午前十時부터若槻相官邸에서濱口藏相을爲始하야各局長等이出席、會議를開하고稅制整理、關稅改正其他에就하야協議한結果大藏省의稅制整理는當面의急務임지나地租移讓는行치아니하기로하고稅制整理調査에努力하기로하엿는데右에就하야憲政會某幹部는語하되地租移讓은事實上困難하고또地租減을最適當타하야此를研究中이라하더라

今年度
租稅歲入
一割增豫想

大正十四年度의租稅收入豫想에就하야는過般財務部長의會同에際하야調查한바에依하면大體에잇서서豫算面보다約一割의增收를豫測할수잇다는데此는天候等의順調로因하야大體로農業을樂觀할수잇스니昨年과如한旱水害等이猖獗치안는바에는收入은增加될줄로思한다하며다만商業方面에잇서서財界의不振으로多少影響을受하야二三減收가有할說인바卽

▲地稅 豫算面 一五、三〇九、三〇一 豫想額 一六、八四〇、〇〇〇
昨年과如한旱水害가無할것으로하야地稅免除等이無하면大體로約一割의增收가有하겟고

▲酒稅 豫算面 [illegible] 豫想額 [illegible]
農業方面의收穫增에依하야此의消費量도增大할터인故로大體로三分假量의增收를得할듯하며

▲所得稅 豫算面 [illegible] 豫想額 同

▲關稅 豫算面 [illegible] 豫想額 [illegible]
昨年度부터增加되는趨勢에잇는關稅輸入은本年度도大體로此步調로進한것는故로約一割五分假量의增收가有하겟고

▲取引所稅 豫算面 [illegible] 豫想額 [illegible]
財界不振으로因하야漸減의狀態에잇다本稅는豫算編成當時의見解보다도約三割假量의減收가有할模樣이다

▲鑛稅 豫算面 [illegible] 豫想額 [illegible]
鑛業界의復活에依하야增收되는것이아니라昨年度의繰越徵收를合하야大體三分假量의增收이다

▲發行稅 豫算面 [illegible] 豫想額 [illegible]
財界의不況은金融의緩慢을招來하야發行稅等의減收도約三分假量으로觀測된다

▲煙草耕作稅 豫算面 [illegible] 豫想額同

▲砂糖消費稅 豫算面 [illegible] 豫想額同
砂糖은昨年의貯藏品等이잇고且震災後東京方面의日本製糖復活等에依하야今年度는겨우豫算面에서彷徨될줄로思한다

▲順稅 豫算面 [illegible] 豫想額 同

▲出港稅 豫算面 [illegible] 豫想額 同

右와如히此의總額은租稅約一割의增收가有하겟고更히印紙收入은約一分五厘의增收에達하야九百二十五萬三千餘圓、驛屯土拂下付料는豫算面同樣、驛屯土貸代는年賦償還期限의短縮을希望하는者도잇서서約一割假量의增收로約四百二十萬圓에達할듯하다더라

勞農露西亞의現狀 (二)
金俊淵

新國家의性質

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은聯邦國家의一種이라 그聯邦됨은 獨逸聯邦이나 北米合衆國과 別로달을것이업스나 한가지顯著이달은點이잇스니 卽聯合을構成한各國에게 聯合에서脫退할權利를明白하게 認定한것이다 이點으로보아서 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의各支國은 如前히獨立國家의性質을具有한것이라하겟다

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이 달은資本主義의國家들과 달은點은 爲先그名稱에잇다 大槪國家의名稱은그土地의稱號에因하거나 또는그民族의名稱에基因하는것이다 그러한데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은 土地의稱號도쓰지안코 民族의名稱도쓰지안코 그信奉하는主義와實行하는政治組織을表示하는것으로國家의稱號를삼엇다 이點으로보아서 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은 國境을超越하고 民族을超越한國家이다 莫斯科에本據를둔 이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은 明瞭히瑞西에本據를둔 國際聯盟과對立한것임을看取할수잇다 이意味은 그國家의名稱으로만因하야 알수잇슬뿐아니라 聯合宣言에잇서서도 明白히說明되엿다 卽世界資本主義에對抗하기爲하야 世界社會主義聯盟을 組織하는것이다 또終局의目的은 世界의勞作階級을 聯合하야 一個의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을 建設하는데 잇다고하엿다 瑞西에本據를둔 國際聯盟에 잇서서는 階級的意識은 意識的으로는 鮮明치아니하다 그러나現在의狀態로보아서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이 全世界勞働階級의國際聯盟 또는單一國家를目標로하고나아가는것이라하면 瑞西에本據를둔 國際聯盟은 全世界資本階級의國際聯盟 또는單一國家를目標로하고나아가는것으로볼수밧게업다

또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이 달은國家들과달은것은그統治機關의組織에잇다 現今世界文明各國에서流行하는政治組織은 立憲制度이다 立憲制度는 三權分立을骨子로한制度이다 이三權分立의制度는 北米合衆國에잇서서 가장徹底히實現되엿고 英獨의近來趨勢는 三權分立의思想을輕視하는듯하다하나 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에와서는 三權分立을骨子로한立憲制度는 採用이되지못하엿다 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以外의國家들은 所謂『데모크라시』라는것을實現하기爲하야 立憲制度라하는政治組織을採用하엿고 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은 無產者의獨裁를實現하기爲하야 『쏘베트』制度라는새 政治組織을發明하엿다

쏘베트制度의特色은三權分立에잇지안코 그反對로非三權分立에잇다 『모든權力은쏘베트에』라는標語의明示한것과가티 쏘베트大會는모든權力을總攬하고 그選出한中央執行委員會가 쏘베트大會閉會後에는 最高權力을行使하게된다 쏘베트大會는每年一次式召集되는 會─中央執行委員會幹部會 쏘베트大會─中央執行委員會─中央執行委員會幹部會가 最高權力을掌握하게된다 中央執行委員會는 年中繼續開會하는것이아니오 그選出한中央執行委員會의閉會中에는 最高權力機關은 中央執行委員會幹部會이다 하나每年一次式召集하는大會는一週間乃至二週間式밧게는 開會하지아니하는故로 모든問題를 決定할수는업다 함으로 쏘베트大會의縮少圖인 中央執行委員會로하여금쏘베트大會閉會後에는 最高權力을行使케한다 또中央執行委員會도 年中繼續開會할수는업슴으로 그幹部會에서 中央執行委員會의閉會中에는 最高權力을行使케한다 卽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의最高機關은 이와가티하야 一時도쉬지안코 不絕히活動하고잇다

◇備考 勞作階級이라 하는新熟語는 Werktaetigen 의譯語이다 우리가普通쓰는勞働階級이라는말은 工場勞働者나 田園勞働者나頭腦勞働者를 勞作階級全部包含하게된다 이것은 工場勞働者나 田園勞働者나 頭腦勞働者外지도全部包含하게된다

昨年豫算編成은
來月中着手?

內閣이示한來年度豫算編成方針에從하야朝鮮總督府에서도七月이되면直時豫算編成에着手하라고準備中인데年年歲出의增加에比하야歲入이如何치못하야今年度는大端히苦心을要하엿스며剩余金과如한것은全혀激減되엿다그러나十五年度歲入은到底히歲出에達치못하야玆에何等의方策을講함이아니면編成難에陷할貌樣인듯한데此의對策으로는再次行政整理를行함에餘裕가無한結果最近은官業整理에觸目하고此를調査하는中이라고傳하는데官業整理라하더라도專賣局關係와如한것은到底히此를如何히不能하고營林廠의縮少가其焦點이되는데勅任廠長等의廢止가問題中이라하야벌서부터水口氏는來八月二十三日로써任期가되는데深尾理事의後任이되리라는所聞이有함에至하엿다此에關하야財務當局은歲入의漸減은肯定하나尙히歲出額에達치못하는程度는아니라하며官業整理의營林廠縮少에就하야도否認하는中이더라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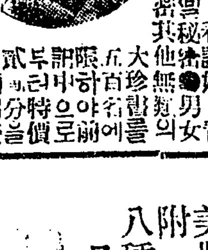
○馮玉祥은、全中國을動亂化한後、奉天軍의虛를衝하야、舊勢를挽回하고저한다고、拔一毛而利天下라도不爲는、楊朱의徒이다、爲己慾而動天下를不辭하는것은、軍閥의盟人가。

○米國에서는、酷熱이一週以上繼續한結果、公園에서經夜하는者、맨발벗고出入하는婦人、大路邊에서水浴하는婦人이續出한다고、인제도熱帶住民을숭볼勇氣가잇슬는지

○中國의排外運動은、目標가英國에集中되엿다고、日本에서는조와한다、그러나、맙소노치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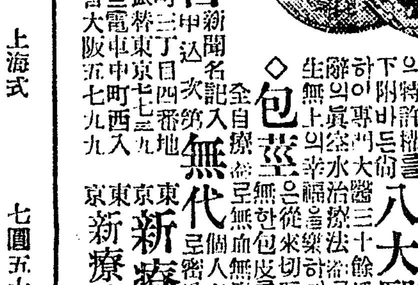
◇金鎭來氏 全北金堤郡聖德面 ◇李明汝氏 咸南咸興郡州西面 ... 一日四五分 ... 三金 十七圓五十錢 ...

獨習用 敎科用 에쓰페란토研究 (一名世界語自通)
定價金壹圓 送料十一錢
한갓理想에不過하든에쓰語는今日에는實地로普及이되엿다、政治、經濟、文學、오갓方面으로그勢力이벗첫다、그는世界共通語되는것과가장短時期에獨習으로라도곳原文을볼수잇는새닭이다現代모든方面의書籍은다이에쓰語로飜譯이되엿다特히文藝에뜻한이는勿論이오今年日本에서도이에쓰語를各小學校、中學校의學科目에編入하기로벌서衆議院에通過되엿다 今後職業을求하는이를爲하여에쓰페란토研究를勸하다
發行所 京城壽松洞六七 文友堂 振替京城一二七二七番 ◎分賣所京鄕各書店


性에煩悶하는! 靑春男女의渴望하는珍書가安心하고살수잇다
▼읽은後에價値가잇스면代金을支拂하는新式購讀法 ●처녀(處女)의性慾 ●男子가보고십고女子가보고십허하는男女의秘密 ... 新婚初夜의秘密 ... 戀愛文集 ... 圓에한하여 이책을보고도 ...
東京赤坂丹後町十二 東興堂
裸體美人寫眞 ... 特價壹圓 ...

新案品 實用理髮器

使用輕便 堅牢無比 價格至廉 好評嘖嘖!!
美裝函入 附屬品 八種添付 壹號組合品四圓也 貳號組合品參圓五十錢 參號組合品參圓也
日本理髮器具會社朝鮮總代理店 京城鍾路二丁目 長尾金寶堂 電話光化門四四五番 振替京城一一〇七番

男子의秘密病 生殖器短小衰弱의復活
藥으로生殖器短小를發育식히며及過淫의害、遺精、早漏、陰萎、快感減少、稍減退、神經衰弱、慢性淋病의復活에는備一覽會와發明共進會에서最高位名譽大金牌를받은 八大醫學博士 ... 全自療法 包莖 ... 偽物에注意 ... 東京新療法研究所 大阪支部
寶空水治療法 第一位石醫大金牌受領

◇詳細說明書 申込次第送呈 ...

百發百中! 누구든지되는 運勢 獨占카ー드
이카드는斯界의名家光眼先生의苦心研究한一大考案 ...
箱入壹組 特價壹圓 送料十錢
東京市上野櫻木町二十一 好文社 振替東京六〇四六八番

天一靈神丸 旅行者常備之良藥 本舖 天一藥房

開業四週年紀念으로全朝鮮各蹴球團에 『볼』特割引大賣出
全朝鮮各道郡에 特約店募集

蹴球靴 (黑白紫福壽) 上海式 七圓五十錢 流行式 八圓 新佛式 八圓五十錢 同特製 九圓五十錢 쓰파이運動靴 四圓 (送料各四十五錢)
幼年 少年 壯年 同上 同特 同 品用 用品 用品 三號 四號 五號 五號 六號 六號 料 三圓五十錢 四圓 五圓 六圓 六圓五十錢 七圓 各三十五錢
다이야몬드式(中部並)
서울뽓볼製造所 京城府體智洞二二五番地 振替口座京城九四〇一番

赤色露國八面觀(一)

金俊淵

露都의第一印像

도로의정돈된것을볼때 로서아의정돈됨을알어

로동로서아(勞農露西亞)—본명으로 말하면 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련합(社會主義쏘베트共和國聯合)은 신시대의가장 큰산몸인동시에아즉도세상에서 이나라가 엇더한조직으로되야잇는지 그나라백성이엇더한 생활을 하는지궁금히역이는 나라이다 내가조선일보특파원의책임을 가지고이쉬투른나라를가게된후독자제씨는혹신기한소식이나전하야줄가하고고대하신이도 만흘줄안다 그러나통신의 부자유와기타 여러가지사정으로 인하야 한두차도일즉이 독자의압헤새로운 소식을 전하지못한것은 심히유감으로 생각하는바이다 그러나 이제라도그곳에가서 보고들은바를 인상에남은대로 단편뎍으로라도적어보랴한다(이긔사는 본지일면에 긔재하는로농로서아의현상이외에따로히 부분뎍으로 긔록하는것인줄 미리말하여둔다)

막사과 뎡거장! 밤낫아흐래동안가슴에는무한한긔대(期待)와 상상(想像)을 품고 지리한긔차려행을 한다는사월십일일 오전팔시반에 나의 려행의목뎍디인 막사과 뎡거장에 나리엇다 친철히 마저주는 두어 동포를 따라 자동차에올은나는 뎡거장에서 려관까지 가는동안에、마치고란사람모양으로 눈을 휘둥거리며 거리와집들과 지나가는 사람과 뎐차의뗑뗑거리는 소리까지 한가지도 배어노치아니하고 주의깁흔눈으로 보살피엇다 뎨일먼저나의눈을놀래인것은시가의 정결한것이다 전쟁전백림(伯林)이세계에뎨일정결한도회라하엿스나그곳은한번전쟁의참화가 지나간후엽시든도야지우리갓든 벌명을듯는더러운 도시가되엿지만、이곳 막사과야말로세계어느나라의도시에비할지라도못지아니하리라할수잇나 우리속담에살림사리는 장독니를보면안다는것과가티 한나라의내정(內情)은도로(道路)가 설명한다는것을 생각할때에 나는먼저 로농로서아가이만큼 정돈(整頓)되엿구나하는 생각이낫다

街路에널린赤頭隊

일과운동밧게모르는백성 아라사풍긔를말하는현상

동재로나의눈을놀래게한것은어린남녀와 젊은남녀가 긔쾌한운동복가튼것을입고 머리와 목에는 붉은수건을 동이고 소리를합쳐노래를부르며 예를지어서 시가로횡행하는것이다「붉은」나라이매붉은수건을쓴 소년들이 횡행하나보다하는생각으로 처음에는심상히 지나쳣스나 갈수록 맛나느니소년의예、청년의예、붉은머리의무리、거리거리에 널린것이 적두대(赤頭隊)뿐인것갓다 동행의동포에게무른때、이나라에는 이것이중요한 특색의하나이라한다「어려서부터 씩씩한정신과 튼튼한육톄를기른자」하는것이이나라의방침으로학교에서나소년단、청년단에서나 언제든지운동을장려하며따라서일반국민에게도운동을장려하야 일을마치고는곳운동을하야 자고깨면하는일이「운동과일」의두가지뿐인것갓다한다 그리하야 전국뎍으로 삼십만명이상의 회원을가진청년당에서는이정신운동대회운동을 지도장려하여간다 하며이반면에유흥긔분(遊興氣分)을 길르는「떤스」 춤추기 가튼것은자연업서지게되며배척하게된다한다

◇사진설명=청년당원남녀가 석겨서막사과크리믈린『궁뎐』앞을 진행하는광경

今曉龜城서衝突

武裝團一名被殺

경관대와충돌하야한명죽고 한명잡힌후권총과실탄압수

십사일새벽 네시경에 평안북도귀성군방현면변산동(平北龜城郡方峴面辨山洞)에서부장단여섯명과경관네가교전하야무장단 한명이죽고한명은톄포되엇스며 륙혈포두자루와 실탄팔십개도 경관에게빼앗겻다한다 (선천지국뎐보)

數日前부터出沒

청년한명을잡아가서민심소란

평북귀성(平北龜城)디방에는근일무장을한 독립단이 이곳저곳에삼사명 혹은오륙명이 신출귀몰하게 나타나서 군자금을모집하는등 비상히 민심이소란한중지난십이일밤열두시경에또신시동(新市洞)원희성(元熙成)의집에 침입하야 현금백원 을가저가고또그근처부호최태진(崔泰珍)의아우(三)인청년을 다리고 어대로종적을 감추어버렷는바 귀성경찰서(龜城警察署)에서는여러곳경찰의 응원을어더 방금대대뎍으로 활동중인바 귀성뿐만아니라선천(宣川)기타여러곳으로출몰함으로 민심이대단히 흉흉한중이라더라(선천)

異域에서慘殺된同胞屍體歸國

황씨주선으로 리원군에도착

함경남도리원군동면봉현리차대도(咸南利原郡東面鳳峴里車大道)씨의 선원(船員)으로로령수청에 청어사러갓다가 아라사청어뎜장들의 독인(毒刃)에참살(慘殺)을당한구명의시톄는황경협(黃京協)씨가가서차저가지고수일전에 리원군 동면군선항에도착하엿는데 그친족의 애통하는모양은 참아볼수업겟스며 피살한 시톄를찾고자 비한한가족의쇤경비가 칠백여원 을넘는다하며흉적(兇賊)에게참혹히살해된선원의 쌔앗긴돈은 일천삼백여원인데 범인네명은 로국관헌이 톄포하엿다는바 혹국데상문데가될는지도몰음이며 죽은사람의씨명은아래와갓다더라

咸南利原郡東面上仙里 李世春(三七)
同郡西面鳳峴里 黃錫燮(三三)
同 黃明德(三七)
同 李元石(三三)
同 嚴守英(三九)
同東面群仙港 金守俊(二六)
同郡東面滑溪里 趙九萬(二一)
江原道江陵郡 鄭謙國(四三)
同 林成龍(三七)(利原)

淳昌署巡査가良民을無理毆打

행려병자를고발해준것이화근 도와준사람을도로혀구타하여

지난음력오월일일에 순창군복흥면 주재소(全北淳昌郡福興面駐在所)에서는 그면뎡산리림창하(鼎山里林昌夏)(三一)부자를격검(擊劍)채로 무수히란타하야 스무하로동안이지내도록 음력이십일일까지 아모일도못하고잇다는데 그내용을드른즉 전긔림창하가 수암리(水岩里)부근을 지나다가 엇던로인이 길가에 죽어잇슴을 발견하고 즉시도라와서 주재소에고발한바 일순사가 가티가자 함으로 현장에가서 림검한결과 주평리장화익(舟坪里張化益)으로 판명되야 시톄는즉시그의가족에게 … 는등 무수한난욕을당하고 자긔집에도라와 알코누엇든바 그아들 종섭(鍾燮)이는 그쎄에산에 갓다도라와서 그광경을 목도하고 긴긔박순사에게 래력을물엇더니 역시가진욕설을다하며 몸시떠려서 보는사람으로하여곰 참아보지못하리만큼되얏다이말을들은 그부친인 전긔림로인이 나와서 주재소가 너무그가티사람을 무리하게따리면 이밤에경찰서에가서 고발하겟다한즉 박순사는 수석순사 구보권(久保田)과일본말로 무엇이라말하고 다시 주재소직원일동이 합력하야림씨부자를 함부로 쓰러다유치장(留置場)에너코 격검채로 엇지따렷던지

림창하도 지금까지능히행보를 못한다하며 그아들종섭이는 이(齒牙)가네개나 쌔지도록마젓슴은 사실일뿐더러 얼마나따렷든지 이십여일이지낸 오날까지 병석에누어 잇다는데박순사는 지난칠일에 자긔친고 김양언(金良彦)을식혀서 돈오원을보내여 개(犬)나 한머리잡아 소복하라하더니 다시십팔일에는 홍동표(洪東杓)로하여 … 이러쿠론 당하고도살앗다고 할수잇습닛가하며 고소를하자한돌 진단(診斷)서가 업서서 지난십칠일에 경찰서에구두로말하엿더니 아모소식이 업고 남의토디 멀뜨마직이 소작권도험수업시 취소하엿스니하면서비분의눈물을 흘리더라

蓮花峰青年會女子夜學會

십륙일에개학

부내청엽뎡일뎡목(青葉町一丁目)련화봉(蓮花峰)엡웟청년회에서는 금번부근에잇는일반가뎡부인들을위하야 련화봉례배당내에녀자야학회(女子夜學會)를설립하고보통학교일이년급뎡도로 오는십륙일부터 개학하리라더라

◇사진설명=정구회장의시구식과대회전경 하는우승한배화선수

關西體育會主催 全朝鮮女子庭球大會

南北名手의白熱戰

最後까지奮鬪한正義選手

優勝의月桂冠은培花軍

特派員 李吉用發信

이길가!질가! 의긔조리는가슴을쉬거안人고西京의平壤에모혀든南北의女流『스폿스맨』들은그야말로處女다운處女戰을演出하얏다이와가티가장球史上에異彩를纏노은關西體育會主催와本社平壤支局後援의全朝鮮女子庭球大會는十三日午前十一時부터열리엇스며午前中의第一回豫選戰績은昨報한바어니와이제그後의二回豫選이마치고三回豫選戰에이르러梨花女高大將李寶貝●崔士羅組와培花의大將白順伊蔡善妃組가對戰케되매京城에서도京越한兩組의接戰이리종처럼地方大會에서볼수업는白熱의차홈이엇다이와가튼緊張된속에培花【京城】對正義【平壤】의決勝戰에이르러培花가三對零이로優勝하니때는午後三時過半頃이엇섯다

=第一回豫選=

바람일자공날려

正義 梁惠信/劉敬俊 3—2 金永義/卞寶石 梨專

大會는梨花專門의花形인金永義卞寶石組와正義女高의梁惠信劉敬俊組의對戰으로除幕되얏다兩軍의對戰은昨報한바부터天候의感이잇서보엇다梨專은技術의차홈을하라한다면正義는力戰으로對應만하라고하얏다그러나이러한新關의相對組에게『에임투』를빼앗긴梨專軍은『추스』를거듭두번하이敵을익인後다음에『제로』로또익이어『에임투올』을恢復하얏다그러고梨專軍『서부』에서매隔先制球는前衛卞寶石孃의『볼레』도敵을압호게하아梨專有利하얏스나때마츰검은구름이얏치롤면서바람이원어공의方面이不利도얏다

零敗식힌培花軍

培花 文玉善/李永愛 3—0 申藹黃/劉敬淑 崇賢

培花의李永愛文玉善組는崇賢軍보다技術이잇서서越等히나엇다四對二와六對四와四對一로培花가익엇다

初球는익여노코

培花 禹詩命/吳立分 3—0 盧淑根/金恩德 正義

正義盧淑根金恩德組는培花軍에게對戰할意氣만은식식하얏다그리하야매양『에임』마다初球만드시正義가익이어노코零敗하얏다

앗기운練習의差

培花 白順伊/蔡善妃 3—0 陸蓮洙/李景淑 梨專

培花의大將組와梨專의陸蓮洙組의차홈은생각되든바와는아조딴판으로梨專軍不利로웃다勿論培花의白順伊組는그동안大會를두번재맛하얏슴으로練習에잇서서差異가잇슬것이나四對一●四對零●四對二로敗하게되기는앗가웟섯다

=第二回豫選=

抽籤의結果第二回豫選은아래와가티進行되다

敏活한動作으로

梨花 李寶貝/崔士羅 3—0 曺信元/金讃圭 崇賢

梨花女高의大將李寶貝崔士羅組와崇賢軍과의에임은최음選手의『롬』부터完然히달렷다先鋒한後衛寶貝孃과堅實한前衛士羅孃의敏活한動作에는將來有望한選手임을戰慄도 驚異하얏다 四對零六對四●五對三으로梨花勝利

崇賢前衛의妙技

培花 禹詩命/吳立分 0—3 金順德/金仁植 崇賢

培花禹詩命組는崇賢金順德組의前衛金仁植孃의妙策에陣容이허러젓스며崇賢後衛의失策업는打球에는하는수업시零敗되다

『찬스』를일흔崇賢

崇賢 鮮于寶/金寶信 0—3 白順伊/蔡善妃 培花

培花의大將組는崇賢의鮮于實妃組를四對零五對三六對四로익이엇다崇賢은『에임투』를빼앗긴後挽回코저하야『추스』의『찬스』를지엇다가드디여零敗되고말다

不快한同士戰

正義 李信德/孫亨淑 3—2 白李英/洪淑英 正義

大會中에나우는對抗戰技中에自己便끼리抽籤되는것도不快한바이니다正義對正義戰에이르러그例를볼수잇섯다

好機를逸失한

培花 李永愛/文玉善 2—3 金堅信/高利植 崇賢

培花李永愛組는崇賢軍을처음에익이엇스나나종에는지고또익이엇다가진뒤에恢復하여야할『찬스』를失히다

不戰一勝者

梨專 曺恩卿/李俊淑 正義 劉慶俊/梁德信
崇賢 金特寶/金奎徹

=第三回豫選=

千秋의恨을품고

梨專 曹恩卿/李俊淑 2—3 金堅信/高利植 崇賢

朝鮮女子運動界의『스타-』로일즉이京城에열린모든大會에定評이嚇嚇한梨花專門의曹恩卿孃을後衛로한大將李俊淑組는幸일가不幸일가처음부터三回戰까지不戰勝者로탐히엇다그리하아二回豫選에서培花堅鎖文玉善組를익이기어鍛鍊된나머지元氣勃興하여진崇賢金堅信組와對戰케되니滿場의視線은決勝戰以上으로人氣의焦點이되얏스며공하나이라고날를에마다『오아』소리만요릿한空中을무겁게하얏다妙理잇는李俊淑孃의『스마싱』은得意揚揚하얏스며確實한『스폿스』의『폼』의所有者曹嬢의『롬빙』과『백』에는觀衆의가슴을써예로서늘케하얏섯다『에임투올』에『서부』를빗게된梨專軍은風勢에球向을어그려트려球一球마다利롭지안어千秋의限을품고哀惜히물러서다

悲壯한最終接戰

梨花 李寶貝/崔士羅 1—3 白順伊/蔡善妃 培花

京城서遠征은團體로는梨花나培梨의남은一組式의接戰이다最後한오래기의餘望의달린에임이엇다培五梨三으로처음은培勝히엇고梨四培一로梨勝하아一勝一敗後『드리윈』으로培花有利하얏스나梨花後衛의妙한패스에『드리투』가되야공히나게命이달린지음에培花의前衛蔡嬢의『스매싱』에하는수업시勝을讓하고말게되다

正義 劉慶俊/梁惠信 勝—棄 李信德/孫亨淑 正義
崇賢 金特寶/金奎徹 棄—勝 金仁植/金順德 崇賢

=準決勝戰=

花培의勝連戰連

培花 白順伊/蔡善妃 4—2 2—4 6—4 4—2 金堅信/高利植 崇賢

崇賢軍은무존히準決勝에이르러培花의大將에게一勝一敗를내인後連二次敗하야慣敗하다

義正한巧妙策術

崇賢 金仁植/金順德 0—4 1—4 1—4 劉慶俊/梁惠信 正義

正義軍은崇賢의名前衛가잇는金順德組와對戰하야後衛의術策으로前衛의攻擊을避하이험안드리고익이엇다

=決勝戰績=

培花軍遂히優勝

正義奮鬪도水泡

培花 白順伊/蔡善妃 4—2 4—1 4—0 劉慶俊/梁惠信 正義

大會로의決勝戰은培花와正義사이에뜰리엿스나決勝戰다운決勝戰으로볼수는어려을만큼無味하얏다技倆으로나力量으로나經驗으로나到底히正義로는培花를對敵히야決勝할만한勇氣부터주려보이엇다그러나善히차와웃까지奮鬪히얏것만審判으로부터『에임셋트』를宣告하니萬事休矣되다

優勝旗授與式

大會가別項과가티盛況裡에마치고大會會長으로부터培花女高의白順伊蔡善妃組에게優勝旗及其他副賞品을授與하고無事히閉會니때는午後三時過半이엇다

大會에寄付 德山商店의松高鐵치마감二疋을비롯하야平壤運動具店라켓二本▲三正化學工業社會金剛잉크一打半▲無名氏사이다一箱

光州印刷工

…刷所직공일동이 해고(解雇)문제로인하야 동맹파업을 단행히 … 몸을만히맛고 일을못하게 되얏 … 승으로 임시광매를당하야 당은 … 라하기를 승락하고 직공들에게 … 은복산에게 채무가 잇승으로미 …

層岩絶壁에서

석을채취(採石採取)하다가 … 벽에서 떠러저서 사람이 참혹 … 고오는길이 성하야 여섯시간후에절명하엿다 더라(덕천)

… 일마일반쯤되는 사람의 왕래가 드믄경덕궁과 도수장의 중간거 … 은일수업스며안의복은 누른저고리에쳐양목치마를입엇스며 …

瑞麟洞에行旅屍

오후종행인이 발견하고 종로서에 …

金堤地方旱魃

일반의인심불안

전북김뎨디방(全北金堤地方)은 작년겨울부터 비와눈이 그리만히오지아니하여 작년의한재로놀래이엇던 일반농가에서는 봄비만밋고 나려오던바 옷아니하엿던촌한은 나날이갈사록 더욱심하야일반의인심이불안한중에잇다더라(김뎨)

北栗爭議判決言渡

일심보다 더중하게되엿다

북률면 소작쟁의사건의 언도공판은 지난십삼일이라함은 긔보하엿거니와 당일오전십일시에재판장 우안(宇安)궁내(宮內)량배석판사와 소검사의 렬석으로 개뎡하고판결언도를하얏는데 신내섭(申乃燮)송재현(宋在鉉)두명은일심판결과가티 륙개월 징역김계윤(金桂潤)외삼명은일심판결에각사개월을 더하야 십개월징역언도를하고 폐뎡되얏는데 피고들은 …

山積한贓品

서대문서에잡힌 근래희유의절도

원적을 개성군북면토미리(開城郡北面土尾里)오백구번디에두고고양군 연희면아현북리(高陽郡延禧面阿峴北里)이백삼십이번디에 무하는강도명(姜道明)(三)은작년팔월이후도시내각처상뎜 기타 부인집에출입하면서 전후삼십여회에 삼백여원어치 물품을 절취하야모다뎐당포에 잡혀먹은사실이 발각되여 지난십일일에 서대문서원의손에검거되여 엄중한취됴를밧는 중인데 그자의 자백한대로 뎐당한 물품은 전부 차저물건수인에게 각각전하게 되여 자십여인이 동서사법계 취됴실에와서 물건임자가 차자가게되엿더라

井中에溺死

정신이상으로

시내루하동(市內樓下洞)이백삼십사번디 안종련(安鍾連)(三三)은 십삼일새벽에 자긔집을나와종동(鍾洞)백십륙번디압헤잇는 우물에빠저 죽은것을 일곱시경에이르러 동리사람이 발견하엿는데 죽은원인은 정신에이상이 생긴까닭이라더라

鎭南浦에殺人事件

디방열과 일본말이화근으로

본적을 황해도(黃海道)와 평안 … 목포(木浦)에두고 송윤봉(孫允鳳)외 두사람과 본리원진(李元鎭)정긔현(鄭基鉉)김치문(金致文)류복경(柳復京) 일본사람의 고기잡이배에 다니는 선원(船員)노릇하는신경춘(申景春)(三)안경숙(安璟淑)(三)두사람은 지난십이일 오후다섯시경에진남포부비석리(鎭南浦府碑石里)이백삼십삼번디 장준혁(張俊赫)의집으로 리근식(李根植)을차저와서 주석에서 서로만나인사한후 술을먹다가 전긔김치문외 여섯사람이 안경숙이가 주석에서 일본말로 말하는것이아니꼽다는것을 트집으로 한참동안피차간 언쟁을하다가 김치문외에 여섯사람이 … 가지고 안경숙 신경춘 … 그집웃밧게서 자고잇든 …

가티자고 잇든신경춘이란사람까지도 가튼리유로무수히란타(亂打)하야안경숙은당장에죽여버린후 어대로종적을 감추어버리엇는데 이급보를드른진남포경찰서(警察署)에서는 진남포검사국(檢事局)과 련합으로 태평두(泰平頭)류뎡(柳町)유곽(遊廓)료리뎜(料理店)평양루(平壤樓)에서려연히 술을마시고 잇는 … 신경춘(申景春)의 시톄를 부립병원(府立病院)으로 옴겨다가 동십삼일 오후한시부터 중촌(中村)검사외에 길뎐(吉田)리(李)두서긔와 김(金)사법계주임 립회하에 송본(松木)부립병원장의 손으로 동여섯시까지 해부검안(解剖檢案)한후 시톄는 곳진남포부에 인도하야 공동묘디(共同墓地)에 매장하엿는데 죽은원인은 타살(他殺)로인한 뇌출혈(腦出血)로 판명되엿다더라(진남포)

東大門署에도 장품이산갓다

오인의절도단의

십사일오전에시내동대문경찰서(東大門署)사법계취됴실안에는가마(釜)가네개와양산、라켓트 … 복등뎐당포쪽지무슨물품을산처럼싸하노코 약이십세 가량된청년들오인이 … 고양군숭인면(崇仁面)에사는김○용(金○容)이란자로서오인의절도단을 조직하야 오래동안 … 그자의 자백에의하야 … 그외에도 아즉여죄가 만흔듯하야 계속취됴중이며 … 근래에자못드문절도단이라하며 피해액은 수천원에달할듯하다더라

회호리바람 漁船顚覆에

십이명이 생사불명

원본동아도현 대도군우검촌(兒島縣大島郡宇檢村)에잇는 평뎐견어업(平田鰹漁業)발동긔선세양환(勢洋丸)은대도군횡아행도(橫阿幸島)와도서(島嶼)의사이에서 룹치(鰹)를잡던중 칠일오후 열시경에『회호리』바람을 맛나 배가물결에차여 마츰내승조원십이명은 거처가 불명되고남은 이십삼명은다행히 생명을보전하야가지고 몃칠동안 포류하다가 십이일에겨우 마을에도라왓다(녹아도뎐보)

六十老婆를强姦

노파는분개하야 경찰에고소뎨긔

안성군삼죽면가현리(安城郡三竹面加峴里) 뎡시중(鄭時中)의안해김진래(金振來)라는오십륙세되는 이는 지난달삼십일오후여섯시경에 구봉산(九峰山)에 올라가서 나물을캐고잇슬때에 룡인군외서면장평리(龍仁郡外西面長坪里) 김경술(金敬術)(三)이라는자가달려들어치마끈으로수족을동이여 노코강간(强姦)을하고도망하엿슴으로김씨는심히분개하야 붓그러움을무릅쓰고 아들과사위를다리고 그자를수색하든중 지난일일동평리에서발견하야즉시죽면주재소(駐在所)에고소를뎨긔하엿다더라(안성)

毛筆로一圓券을偽造

사용하다가발각

경북성주군 청파면수성동(慶北星州郡靑坡面水成洞)최덕술(崔德述)(二八)은조선모필로 일원지폐를 틀림업시 위조하야 가지고 가천면창천동(同郡伽泉面倉泉洞)엇던상뎜에 물건을사다 가발각되야 성주경찰서에서 방금엄중 취됴중이라더라(성주)

赤痢發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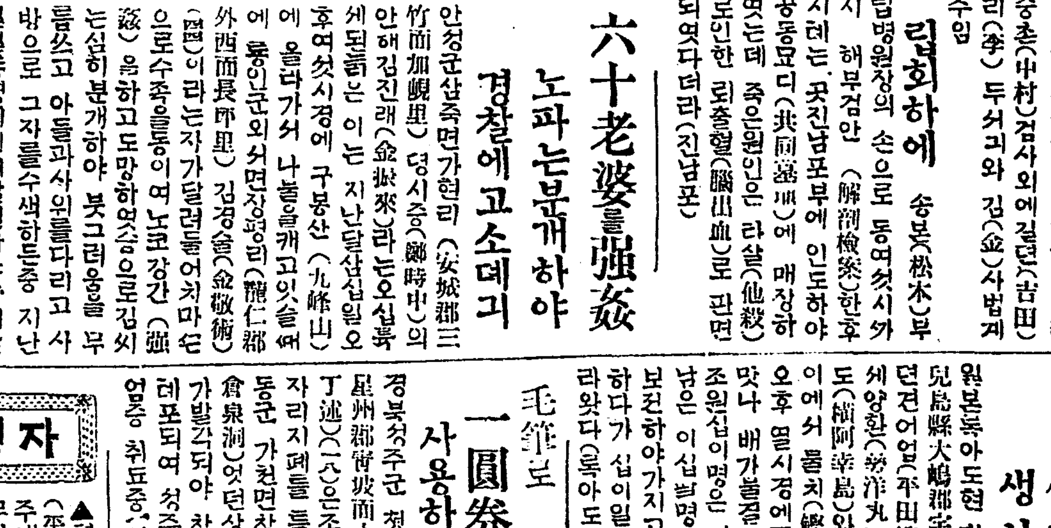
평양시내에

평양부수뎡(平壤府壽町)일백삼십팔번디장복순(張福順)(三○)은 십일일아츰에 적리병(赤痢病)에걸린것이 판명되야 평양서에서는 그집에출입을 금하고부근을소독하며 엄중히주의한다더라(평양)

종명자

▲평남순천군신창면(平南順川郡新倉面)주재소(駐在所)에근무하는토거(土居)라는일순사는▲지난십일당군본서소집에참례차로왓다가그날밤 십일시경에술을잔뜩먹고 순천읍을 도라다니다가 동읍서번리 김모(金某)라는집부엌문에 ▲오좀을누로그주인의커가말하기를▲웨함부로 경관의몸이 되야가지고남의 부엌문에다가 오좀을누느냐고 말한즉 ▲토거(土居)순사는도로혀 말하는 부녀의 빰을 함부로따리다가 군중이모혀대소동을 이르키엇「게다(下駄)」까지버리고 다라낫다고

化粧界의大革命
美顏二八水
男女共用
注意 二八水는二八水本舖에서
本舖 京城壽松洞百番地 康益洙化粧品部 振替京城九四二七番
嘖前의大發明



金光堂時計舖
時計眼鏡及貴金屬類
京城南大門通四丁目六六番地

最理想的의優良品質『太昌』獨特의安價提供
洋靴는太昌號에限함니다
紳士靴拾圓 短靴五圓 編上六圓 紫色五十錢上
洋靴商 太昌號 京城南大門通壹丁目

網紗蚊帳製造大賣出
◎日本網紗 ◎西洋網紗
京城鍾路二丁目一○○ 永興德商店 鄭昌淳

擔任醫師診療開始
內科、花柳病科專門診療
但當分間無料診察藥價實費
京城府笠井町一番地 濟衆院

大正十四年秋季種苗案內
帝國種苗殖產株式會社

社說 世界를 縱觀하면서

人類의 慘厄을 思함

一

吾人은 閑散期에 處한 世界政局의 매우 平凡한 바 잇슴을 말하엿섯다 表面으로 본 世界의 政局이 閑散平凡한 狀態로 잇는 것은 지금도 依然한 바이다 國際政局의 通例로 보아 强大國의 相互間에 甚大한 葛藤 集中할 만한 바가 업다는 意味로써 과연 現下의 國際政局 即 世界의 局面은 依然히 平凡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政局의 表面이 如何히 平靜함을 勿論하고 現代의 人類가 憤怒와 倦怠 突進과 休息의 兩個의 潮流中에 陰鬱慘澹한 變態的 傾向을 把握하고 잇는 것은 事實이다 世界政局의 原動力을 짓는 大部의 强大國民들이 戰亂에 因한 精力의 浪費와 밋 財力의 枯渴로 因하야 甚大한 倦怠와 밋 休息欲을 늣기니 이는 歐洲의 國際政局이 一時平靜함을 保持하는 所以이다

二

倦怠한 氣分中에 休息을 渴望하는 列國의 支配階級들은 그 當面한 諸問題에 對하여서도 항상 險隘遼遠의 態度를 벗지 못하나니 英佛의 兩國이 對獨安全保障問題로 因하야 자못 長時日을 遷延하면서 벼로다만 意思의 疎通을 위하고 아즉도 드듸어 斷然한 解決을 짓지 못하는 것은 매우 그 洪濛치 못함을 늣길 바이다 그러나 倦怠한 氣分中에 時日을 放過하는 것은 다만 列國支配階級들의 일일 뿐이 아니다 列國의 被壓迫階級의 人士들도 그의 非常한 憤怒와 突進의 氣慨가 時機에 넘친을 勿論하고 또한 不利한 時局의 形勢中에 다만 陰鬱한 倦怠의 情을 늣기고 잇스니 이 不自然한 倦怠中에 局面의 沈滯됨을 慨嘆하는 그들 被壓迫階級들이 多少而爲의 機會가 잇스면 一時에 獰猛한 突進의 氣勢를 發揮하는 것은 매우 必然한 現勢이라 向者 勃牙利의 農民共産黨의 陰謀 밋 騷亂이 視聽者로 愕然히 驚嘆함을 非常한 方式으로 되엿든 것은 그의 가장 쉬運한 實例이라 할 것이오 現下 世人의 注目의 焦點인 中國의 示威動亂과 밋 「모로코」에서 繼續되는 回敎徒의 叛亂은 또한 그 氣勢의 獰猛함이 非常하게 볼 수 업는 바이다

三

中國의 示威動亂에 關하야는 吾人이 다시 新奇한 論評을 加코저 아니한다 그러나 그것이 單純한 一部 陰謀家의 敎唆이나 或은 赤露와 結聯한 共産派의 陰謀에 因함만이 아니오 그의 積年鬱結한 國民的 憤怒가 强大한 列國의 抑壓中에 長久한 倦怠를 견듸고 잇다가 마츰내 一大爆裂을 비롯한 바이라 故로 그의 發端이 貧窮한 工人들의 罷工事件으로 되엿스되 畢竟은 學生 商工閥 智識階級의 順序로 漸次 그 動亂의 首腦部를 밧구게 된 바이니 現下中國의 示威動亂은 그 規模와 氣勢가 이미 國民的 大鬪爭으로 轉化하야 다만 局限된 階級運動으로만 볼 수 업는 것이다 段政府를 비롯하야 張作霖 馮玉祥 各派의 首領들이 모다 一世의 雄으로 自處하고 風雲을 際會하야 自家에 有利한 局面轉換을 想望하고 잇는 바이어니와 그의 黨派的 得失을 이제 別問으로 하고 中國의 國民的 運動은 이로써 劃時期的 新現狀을 顯出할 것은 看過치 못할 事實이다 彼等이 長江의 下流로부터 널리 全中國 四百餘州를 振撼하는 形勢를 誘致한 것은 다만 一部의 煽動이나 또는 兩和戰間에 長한 그의 特殊한 國民性에 因함이라 볼 수 업는 바이다

四

「모로코」의 回敎徒는 佛蘭西와 西班牙의 兩大國을 反抗하야 이미 一年間의 戰鬪를 繼續하되 아즉 그 慾氣의 衰함을 보지 못하니 「모로코」는 世界政局의 例外에 잇는 나라이라 그 精確한 報道가 吾人의 心膽을 놀나게 하는 바 업거니와 이제 佛西兩國의 共同對抗의 計劃을 按하건대 그 氣勢의 猛烈함과 戰鬪의 殘虐함이 자못 容易치 아니함을 想像할 것이다 吾人은 이 閑散과 平凡한 列强의 政局의 一面에 流血과 밋 鬪爭의 激烈한 慘劇이 그의 被壓迫民衆들의 領域에서 間斷업시 演出됨을 가장 自覺할 수 업는 바이다 世界의 現勢는 마치 戰亂後 六七年의 熱的 反感激으로써 凝視하지 아니할 수 업는 것이지마는 保守主義의 勝利를 謳歌하는 復活 이 陰鬱慘憺한 變態的 傾向은 다만 人類의 深大한 慘厄이 그 以後 至하는 어떠한 新序幕을 促成할 意味할 뿐이다

五

佛西兩國의 聯合下에 蹂躪되려 하는 「모로코」人의 運命은 早晩에 決定될 것이다 그리고 中國의 一部人士 그의 對英開戰의 決心을 말한 者 잇스니 吾人은 이로써 砲火로써 보는 國際的 戰亂이 잇스리라고 豫期할 수 업는 바이지만 少 中國의 慘厄은 가는 人類的으로 急速히 解決할 수 업는 바이오 다만 紛糾錯綜한 萬派勢力의 交爭中에 長久한 旋渦를 날으키어 사람으로 다만 新生의 苦痛을 體驗하게 할 것이니 吾人은 이 混沌한 世界相에 人類의 慘厄을 嗟咤할 때에 無數한 權力閥의 人物들과 아울러 自然의 創造神을 彈劾하고 陰鬱한 淵涌에서 呻吟하는 朝鮮의 同胞들과 함께 이 天來하는 罪惡을 甘受코저 하는 바이다

력사상에 (九) 「이름난녀성!」

자유평등을위하야싸호다 단두대의외로운혼이된 녀류혁명가「로란」부인

불란서 내무대신의 부인(夫人)은 「로란」이 가차지하엿스나 모든 실권은 넷날 재상들의 손에 잇섯다 부인은 「개혁은 점점 조정과 일치협력하야 실현될 것이 아니란」고 말하며 「나는 전제정치 아래서 생장하고 전제에 의지하야 입신을 하엿스나 왕의 립헌뎍(立憲的)사명을 입을 수는 업다」하엿다 부인은 「로란」이 처음 대신이 되야 흥연히 왕의 압제에 나가 감을 보고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부인이 요구하는 대로

남편이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내각으로써 도라올 때는 「내각은 한 술집에 지나지 못하고 남편은 몽동이를 엇거세운 것이나 똑가튼 일이다」하고 「로란」을 향하야 모욕하엿섯다 그해 륙월이 되자 내각과 왕사이에는 벌서 큰 충돌이 일어낫섯다 오지리(墺地利)에 대하야 개전(開戰)을 포고한지가 벌서 사개월이 지낫스나 전쟁은 조금도 리롭지 못하야 인심이 자못 흉흉하엿섯다 새로된 헌법을 순종하기 실혀하는 승려가 만허서 나라는 더욱 분운하고 로 내각은 파리성안에서 이만의 병사를 써 안내외의 길을 방어하자는 계책을 세웟다 부인은 남편에게 권하야 이것을

실행하도

록 내각에 잇는 모든 신하일동이 왕의 련명청원을 하다고 하엿다 그러나 각신(閣臣)들은 별로 그의 권에 찬동치 안음으로 로란은 자기 개인의 일홈으로 상소하고 퇴직사령을 바뎃다 그러함으로 혁명의 형세는 날로 심하야 일천칠백구십이년 팔월 십일에 왕정을 폐하고 공화정치가 실현되엿다 로란도 다시 내무대신으로 복직하엿고 크게 승리를 어든 로란부인과 일반인민들의 깃붐은 더할 수가 업섯다 마는 우에잇는 일견이 이미 죽는 때는 아려가는데는 막을 수가 업고 사마의 달리는 형세는 제지할 수가 업다

폭민,불량배,혁명에광

취한 사람들의 손으로 의회(議會)가 떠러지고 마니 이에 로란부부와 그 동지들은 잡서잇는 새런디 세력이 잇고 배성들에게 인망이 잇서 이 란국을 해결할 사람은 산악당(山岳黨)의 단톤한 사람뿐이엿다 부인은 단톤을 미워하고 항상 단도들을 맛나 안삼을 일삼는 사람으로 밝어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화하지 아니하얏든 것이 요때라서 그가 요구하는 동맹도 거절하야 다 피로써 불란서

력사상

에 그 처명을 긔록할 산악당은 이 해 구월에 왕당을 삽어죽이고 왕루이 십륙세의 머리를 베혀버렷다 공화정치를 세워 건설뎍 정책으로 정부와 인민간에 랑해를 바라든 로란부처는 그들의 너무 무도한 것을 분히 녁이고 로란은 대신을 사면하엿다 산악당은 로란부부까지도 엇더케 처치하고저하야 밤중에 집을 둘러 싸섯다 로란은 도망하야 나게되고 부인은 마침내 포박되야 사랑하는 딸과 울고 잇는 비복들을 위로하며 「아쓰베」감옥으로 압송되엿다 부인의 옥중생활은 실로 한적하고 평화로웟다 조고마한 탁자 하나를 흰보로 덥허 서책상을 삼고 시와 사긔와 영웅전가튼 것을 읽는 것으로써 세월을 보냇다

옥중에

잇슨지 이십사일 만에 부인은 돌연히 방면이 되야 마차에 몸을 싯고 집으로 도라와 층층대를 올라가려 할때에 뒤에서 「부인 부인」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더니 그는 압흐로 와서 두번재 구인장을 내여보엿다 부인은 또다시 삽혀서 산배라지 옥으로 들어갓다 부인은 꼿과 서적을 드려다가 벽과 마루 장밧게 업는 방안을 화려하게 꾸미어 노코 영어를 배호며 그림도 공부하고 가뎡의 경편한 료리법도 연구하며 친절한 옥사장의 안해가 빌려주는 거문고를 타고 잇섯다 떼는 마침 일천칠백구십삼년 가을─

혁명의

불길은 산과가티 파리를 뒤덥허 단두대(斷頭臺)는 날마다 피에 무르녹고 소슬한 가을바람에 악취가 코를 찔를 때이엿다 부인은 태연히 탐창아래서 붓을 들어 『혁명긔』『자서전』을 긔록하기에 로력하엿다 그해 십월 삼십일 지론지스트 당의 명사 이십이인이 단두대에 오르든 날에 부인도 사형자수 감소로 옴기어 가고 여러번 심문이 잇섯나 부인은 최후공판날에 백설가티 흰옷을 닙고 법정으로 나와서 법관의 뭇는대로 답변을 한 후 『결백한 사람을

단두대우에

오르게 할 때는 벌서 결백한 그 사람의 승리의 뭇에 이른 것이외다 넷날 맛티를 멸하고 의인의 피를 마시는 이 불행한 땅을 나는 오죽 깃버하면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컨댄 이 백성들의 자유를 바라나이다」하고 열정에 솟는 마즈막 말을 하엿다 그리고 부인은 그날 오후에 도라가 여러 친구와 친척과 사랑하는 딸에게 유서를 써 보내고 일천칠백구십삼년 일월구일에 번개와 가티 번듯하는 시퍼런 칼날 아레서 사십일년의 생애를 맛처다 로란부인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지 두어날 후에 남편 로란은 부인에서 파리로 통하는 거리나무 아려서 칼도 가슴을 씌르고 자살하엿다 ──쯧──

성황을 일운데구회부인견학

조선녀자정년회와 조선일보사 주최의 데구회부인견학단은 예정대로 십삼일 오전열반시에 창경원압흐로 모히여 중앙시험소(中央試驗所)와 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을 견학하고 오후세시반에 해산하엿다 아츰부터 떠돌든 검정구름도 한천업시 사라진 시리푸른 하늘 밝은 날에 산듯한 차림차림으로 며느님과 따님 어압뒤에 세우고 모혀드는 부인님들 정각이 되매 구십사인의 다수에 달하엿다 일행은 총독부의원 정문으로 드러가 의학전문학교 뒤문을 통하야 중앙시험소로 향하엿다 먼저 고등공업학교 강당으로 드러가 배경하는 차를 마시고 세례로 난호와 소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자세한 설명을 드르면서 공업학교 학생들의 실험실과 염직공실(染織工室) 제지실(製紙室) 비누만드는곳 표백하는곳 사긔그릇만드는곳 목공부(木工部)등을 일일히 구경하엿다 마츰 토요일 오후임으로 실디로 싸고 만드는 것은 보지 못하엿스나 비단 문의는 엇더케 싸는것과 나무를 긔계로 켜고 다듬어 긔계로 밀어내는 것을 간단하게 실험하여 보혀주엇다 신에 을 홈리며 두사람이 맛붓잡고 톱으로 켜도 나무가 똑바르게 켜지지 안코 대패로만 밀어도 나무가 고와지지 안는 것만 보든 눈으로 나무를 켜야 긔계 한 모통이를 돌려 노흐면 솟밧 하나 달삭하는 사이에 나무가 착착 켜지며 반듯하게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업섯다 ─── 그 과학의 힘을 가히 놀라지 안을 수 업섯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 다시 총독부의원으로 향하야 박창훈(朴昌薰)박사의 안내로 의학교 교실과 사무실을 구경하고 사람의 병을 연구하기 위하야 토쉬와 개 원숭이들에게 대신 균을 먹이고 그것을 주사(注射)로써 치료시험을 행하는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방 수술하는 방 진찰하는 방에 차례로 견학하고 오후세시반에 총독부의원 정문에서 해산하엿다 ◇사진은 중앙시험소에서 단원일행의 쉬는 광경◇

멍텅구리 자작자급 (151) 첫실패

(一) 무엇을할가하고 생각하다가 (二) 활동배우를 모집한다는 신문광고를보고 (三) 회사를차저갓더가 (四) 의외에 윤바람과 거러오란말을 듯고 또비관

平壤端午探勝團員募集

◇探勝時期 六月二十四日夜京城驛發同二十六日朝京城驛着 (開城驛과 沙里院驛에서 中間乘車의 便宜도잇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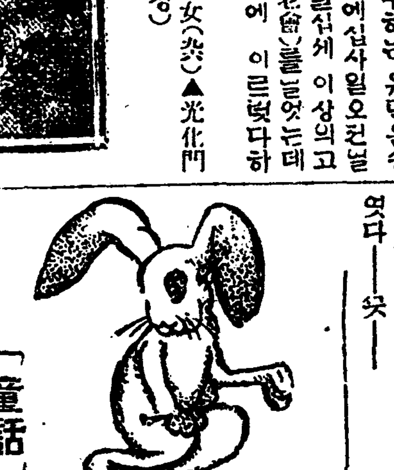
◇參加會費 京城에서 往復每人金五圓、開城에서 同四圓 沙里院에서 同二圓 (二等換乘의 便宜도잇슴)

◇申請事項 六月二十三日午后四時까지 京城서는 公平洞一一太平洋商會(電光一二二一)、堅志洞八三活文社(電光九一五)、水標町四三朝鮮日報社(電光一八七)에、開城서는 滿月町朝鮮日報支局에 沙里院서는 驛前朝鮮日報支局에 各各會費全額을 添付申請하시압

主催 京城旅行案內社 朝鮮日報社

◇유면씨의경로회 대판(大阪)에 거주하는 유면증송(有田曾松)씨의 주최로 경긔도와 경성부의 후원아래에 십사일 오전부터 경성극장(京城劇場)에서 경성부내 거주팔십세 이상의 고령자를 초대하야 로인을 위로하는 의미의 경로회(敬老會)를 열엇는데 당일 우중임을 불게하고 출석한 고령자가 사백오십명에 이르럿다하며 그중에 일 나히 만흔 로인은 아래의 세명이라더라 ▲橋南洞二○朴允泉(九六)▲孝悌洞二○六金姓女(九六)▲光化門通一二三內田아스(九六)▲(사진은 경로회장의 광경)

【童話】 수선화가된소녀 (二)



조곰잇다가 비닭이 한마리가 나무에서 날려와 셜자의 겨트로 안즈며 『셜자씨 셜자씨』하고 또 불럿슴니다 그러나 셜자는 자긔 그림자에 홀려서 아모 말도 대답지 아니하엿슴니다 비닭이는 셜자의 억개에 올라안즈며 두번재 『셜자씨 셜자씨』하고 불럿슴니다 셜자는 성난 목소리로 『무얼 그러니 비닭이야 귀치안케 굴지마라』하고 대답하엿슴니다 비닭이는 깜짝 놀라 『셜자씨 이것은 내 소원이올시다 잠간만 이리 오십시오 저편 나무아레 내 동무가 다리를 셰여서 지금 매우 고통중에 잇슴니다 로매여주시기를 바람니다』하고 애원하엿슴니다 『실혀 나는 이제 떡 어얻는 것을 바라보고 잇는데 비닭이 다리가 븐것이야 아무러케나 되여도 관계치 안어』 셜자는 이러케 정스러운 한마듸의 말을 더지고 전과가티 또한 물우에만 바라보고 잇슴니다 비닭이는 그만 할수업시 나무우로 날러가고 마럿슴니다 얼마 후에 토쉬 한마리가 수풀 사이에서 뛰여오며 『셜자씨 셜자씨』하고 또 불럿슴니다 그러나 셜자는 자긔 얼골에 홀려서 역시 아무 소리도 대답지 아니하고 잇슴니다 즉 토쉬는 셜자의 발을 할트면서 또한 『셜자씨 셜자씨』하고 불럿슴니다 셜자는 『웨 그래 토쉬야 참 귀치안어 죽겟고나』하고 대답하매 토쉬는 두 귀를 벌떡 이르키면서 말하엿슴니다

文藝批評論 (二)

朴英熙

三

『善良한 批評者는 名作가운데에서 自己의 精神에 對한 冒險을 하는 사람이다』하며 또 『客觀的藝術이 잇다는 것보다 더한 客觀的批評가는 잇슬 수가 업다 그들의 眞理는 自己自身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第一큰 不幸中에 한아이다』한 사람은 佛文豪의 안나톨•푸란스이다 『自己精神에 對한 冒險』이라는 말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말 裡面에 評者가 얼마나 『제마음대로』하엿든 것이며 또한 얼마나 評者의 精神的能力이 缺乏하엿든 것을 알 수 잇다 作品을 評하는데는 어느 때든지 評者自身이라는 範圍에서 떠나지 못하고 作品을 評하려는 外에는 밋 그에게 作品을 眞定한 態度로 評할 수 잇다면 그것은 그 評者는 精神의 冒險을 하게 된다는 反語이다 그런 故로 評者는 自己의 精神을 冒險하면서 作品을 眞實하게 吟味하기 爲해서 그 속으로 드러가는 것이다 評者가 만일 이러케 해서 創作속에 잇는 價値와 精神을 發見할 수 잇다하면 그때는 앤푸렌드、커ー의 말과 가티 『批評者는 搆成者의 搆成者』라고 할 것이다 價値에 對한 說明을 創作하는 사람 價値는 創造한데 比해서 評者는 그 創作家는 創作에 對한 微妙한 價値이다 그런 故로 이러한 사람은 커ー의 말과 가티 『조라조치 안라』는 말은 하지 안는다 그는 『사랑한다』『미웁다』는 말을 한다 그것은 엇더한 作品을 氣分的으로 評하려는 것이 아니라 分解와 理解를 가지고 評者의 態度를 鮮明하게 하려는 것이다 分解라는 말을 레마트르의 主張에서 보면 『먼저 批評家는 冊으로부터 바든 印象을 分解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著者의 形式에 對한 것을 말하며 또한 그의 氣質에 對한 것을 그림으로 그 著者를 確定하며 그가 어떠한 世界를 가젓스며 그가 무엇을 차지며 또한 그가 『生』에 對해서 엇더한 感覺을 가젓스며 또한 그의 感受性의 程度가 엇더하며 나종에는 그의 마음이 엇더케 搆成된 것까지를 判定하여야 한다』고 하엿다 그것은 엇더한 評者를 勿論하고 반드시 가져야 할 要素인 것이다 作品을 評하면서 著者의 精神을 모른다든가 作品의 印象을 말하면서 著者의 藝術觀을 헤아리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自己가 生活하면서 自己의 環境을 도라볼 줄 모르며 그 時代에 살면서 그 時代가 엇더하다는 것을 모르는 白痴와 가튼 것이다 쉬웁게 말하면 달밝은 밤에 하날을 처어다보는 어린아이가 『별이 컷은지 달이 젊은지 혹은 구름이 놉흔지 달이 놉흔지』를 瞭解하게 分別하지 못하는 것과 갓다 作品의 是非를 말하면서 作者를 모른다 하는 것이 그것과 갓다 이러한 評者를 『발싹크』는 무러보앗다 『批評者는 대톄 무엇이냐?』라고 『커ー』의 말을 보면 『이러한 批評家는 文學과 藝術에 失敗를 當한 사람이다』하엿다 만일 創作家에게 失敗를 當해서 할것이 업서서 남의 作品의 價値를 左右한다면 그것은 痴者의 輕動 以外에는 아모것도 아니다

四

『그러나 純實한 批評者는 그 自身이 한 詩人이고 創造者가 되여야 한다』『커ー』의 말을 우리는 이저서는 아니된다 創作의 감초인 生命이 評者의 創造力으로 나타나게 되며 創作의 難解의 點이 評者의 創造力으로 說明하게 되며 創作의 缺點이 評者의 創造의 힘으로 分解를 當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評者는 創造的機能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뿐만은 아니다 그 創造의 힘이라는 것은 創作家가 人生과 自然에 對한 理解를 가진 것만치 또한 評者도 그것을 가져야 한다 『다른 모든 著者와 가티 評者에게도 그의 文章에 그의 氣質을 넛는 것이 必要하고 또한 生에 대한 思索이 必要하다 하면 이로부터 評者는 나의 마음을 說明할 만한 自己의 마음을 갓게 된다』 레마트르의 말이 即 創作家가 가진 모든 思想과 氣質과 性格까지를 理解할 만한 賢明한 頭腦와 該博한 學識이 잇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케 되여야 所謂 마퓨•아놀드의 말과 가티 『藝術이나 文學의 偉大한 作品을 創作하는 것보다도 方法에서 自由스러운 創作의 活動을 鍛鍊』할 수 잇슬 것이다 이에서 그 自由스러운 創作的活動이 偉大한 作品을 理解할 수 잇슬 만치 自由스러워야 할 것이다

學藝談話室

『스트린드베르히』는 『보륵만』評傳에 말한 것으로 보면 古今에 보기 어려운 多作家의 하나이다 그의 全著作을 讀破하랴면 普通의 讀書能力을 가진 사람이 每日 八時間식 읽어도 二個年동안이 걸리리라 한다 그런데 이러케 만흔 創作에 對한 腹案을 決코 다른 사람에게 말한 일이 업다는데 이것이 그의 多作하는 큰 原因이라 한다 어느 날 그는 親舊한 사람과 한 演劇求景을 갓섯다 그러나 그 求景은 말할 것 업시 벗이 식혀주려 간 것이엇다 그런 그 戲曲은 친구의 이름으로 나오기는 하엿스나 演劇의 內容으로 말하면 모다 『스트린드』의 腹案 그대로 된 것이엇다 이것을 보고 안젓든 『스트린드•부르히』는 『아! 내의 演劇이나 내의 腹案이 그대로다』라 부르지지다가 그는 모든 것을 깨치엇다 그는 좀 거북한 얼굴로 가만히 演劇만 바라보앗다 演劇이 다 마친 뒤에 그의 친구 한 사람은 아조 깃분드시 『여보게 이 演劇은 엇더한가』라 무러보앗다 『스트린드베르히』는 『응ー이것은 그대로 내의 戲曲이다』하고는 그대로 집으로 도라가 바렷다 그는 이런 일이 잇슨 뒤로는 自己의 製作하라는 腹案을 엇더한 사람에게든지 決코 말치 안케 되엇다 한다

落花 (一○五)

봄바람 번역

그러나 로선생은 다시 생각하엿다

『아니 사십이 넘어서 아이 낫는 것이 그다지 드믈것도 업지 세상에는 오십이 넘어서 아이를 낫는 이도 잇스닛가 그러면 역시 미인 숙자는 방자의 딸이 아닐가 그러라 역시 그 딸이다 방자가 녀우(女優)라 하면 숙자도 역시 녀배우이엇슬지 몰은다 혼자 몸으로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홍운삽의 신세를 지며 그와 가튼 생활을 하엿다 하면 아모리 하여도 녀배우일 것이다 녀배우라 하는 것은 묘하게 제 나이를 속이는 것이며 더군다나 녀자가 스무살로부터 설흔살까지는 나이를 속이기가 가장 쉬운 것이닛가 혹은 이십륙칠세일지도 몰은다 그러라 분명히 그러라 이십륙칠세나 삼십세라도 이십칠 전후로 보히게 하는 녀자가 얼마든지 잇다 더군다나 기생과 배우가튼 무리는 거게 그런 것이다 그러라 하면 준길이가 법뎡에서 그 녀자는 제가 영국에 잇슬 때에는 아즉 정말로 어린애이엇슬 것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다 준길이가 열여섯살 때에 그 녀자는 열세살이나 열네살이엇슬 것이다 그러면 준길이와 왜 친할만한 나이가 아닌가 아 와 안 잇다 올타 준길이가 영국에 잇슬 때에 자조 혼본으로 연극구경을 가서 각정이라고 하는 말은 교사(敎師)의 편지에도 잇섯는대 그런 것을 모다 생각하여 보면 그 녀자와 길히 사괴엇는지도 몰은다 준길이가 미인을 몰은다고 한 하나 그것이 거짓말인 것은 분명하다 시렬관에 가서 미인의 시데를 보고 가만히 울엇다니 것 상은 그 녀자를 아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녀자가 사진까지 보낸 것을 보면 이곳으로 와서도 몃번 왕래가 잇섯든 것이다 그러치만 지금은 련자에 대한 의리가 잇스니가 그 미인과 친하게 지냇다는 것을 밝게 내지 못하고 엇절 수 업시 죄를 입고 잇는 것이다 그러고 보즉 이 사건은 내가 다시 영국으로 출장을 가서 방자의 민적도 료사하고 하야 숙자가 과연 김복첩이와 난 딸인가 그것부터 료사하여야 할 것 아닌가 캐일이라도 곳 영국으로 가야겟군............ 아니 가만 잇자 앗가 감옥직이 말에도 준길이의 사형집행이 멀지 안닷다닛가 영국으로 출장할 새가 업다 출장을 하더라도 그 동안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아모 소용도 업다 그보다는 위선 숙자를 방자의 딸로 치고 또 숙자를 죽인 것은 머좌의 첫재동생 옥자의 원손으로 치고서 그 다음에 그 원손을 차저서 그 자로 하여곰 숙자를 죽인 이 안흐면 안되겟다 그 원손은 이 어대 잇나 이것을 탐색하자 그러면 준길의 무죄한 것이 제절로 판명되야 재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되엇다 이제부터 즉시 그 원손을 찾기로 하자』

로선생의 생각은 이러케 결뎡되엇스나 그러나 그 원손을 어메로 가서 차저야 할가

『홍방향을 알 수가 잇나 이것도 영국으로 출장을 가서 민첩을 료사하야 옥자의 손녀 영숙이 가난 것이 누구이며 어대서 살고 어대로 이사를 가고 한 것을 순서를 또 차서 료사하면 즉시 알 수도 잇지만 지금은 그것이 사내인지 게집인지 그것도 몰으며 나이도 용모도 리력도 도모지 몰은다 말하자면 단서가 업는 까닭인지 정말 뎌가 엇더케 생긴 자인지 그것조차 몰은다 오래 동안 탐뎡을 하엿지만 이런 것은 아마 처음인가 보다 그러타고 영국으로 출장할 새는 업고 .... 아니 악한이 련자를 부쳐하고 금주를 채간 것을 보면 그 악한은 벌서부터 이곳에 잇는 것이다 이것만은 알게 되엇다 이 다음에는 이 불국에 잇는 영국종자를 일일히 료사하면 알 것이다 자야 영국종자로 불국에 와 잇는 자..... 을지 올처위선 청소마도 영국종자다』

이러케 증얼거리고 로선생은 갑작히 몸을 닐엇다

『그러라 그자도 영국종자중에 이곳에 와 잇는 한 사람이다 혹은 그자가 영숙의 아들로서 사대가 되는 자인지도 몰은다 이제까지 악한의 소위를 봄에 보통 사람으로는 될 수 업시 모든 일을 교묘하게 하여 노앗다 그자가 트면 틀히 이러케 할 것이다 그러라 아 그자이다』

이러케 생각하고 다시 영숙이가 혼인한 해수를 생각한 후에 『아니 그가 영숙의 자식이 될리가 업다 영숙이가 난 것은 일천팔백이십이년이오 혼인한 것은 동삼십삼년이나 구년이다 하고 보면 혼인한 그 해에 바로 낫다 하더라도 아즉 청소마의 나이가 못될 것이니가 요컨에 내가 영국에 갓슬 때에 게 들은즉 청소마와 어러서부터 친구라는 정람에게 들은즉 청소마는 당년 사십팔이라는데......』

藥은 山岸

都賣와 散賣

藥局 調劑及小賣一般의 下命을 바라나이다 電話本局二○一番 (市內는 配達합니다)

都賣部 醫家藥業家官衙의 下命을 바라나이다 電話本局 三七二番

通信販賣部 地方에 계신 분은 多少를 不拘하시고 通信販賣部를 利用하시기를 바라나이다 電話本局三六一五番 振替口座京城二○三番

京城府本町壹丁目 藥種賣藥醫療器械商 合資會社 山岸天佑堂 (每月營業月報發行)

◆注文方法
一、注文數量은 定價貳圓以上부터 取扱함
一、郵便이 遠隔한 地方에는 先金을 全部 付送하시면 小包로 酬應함
一、送料는 定價貳圓以上부터 本所에서 負擔홈

海州墨

◆墨의 特色
一、진하고 윤택잇난것
一、검지 안하여 筆硯에 붓지 안는것
一、墨質이 堅强하여 더지지 안는것

◎墨種類及價格◎
翰林風月 壹圓 / 百世淸風 四拾 / 碧城香烟 四拾 / 六角塔 參拾 / 芙蓉堂 參拾 / 首陽梅月 貳拾 / 實用墨 拾

黃海道海州北本町一五一七 海州製墨所

第一堅固美麗한 中折驄帽子 一平生을 쓰실 大幸

平壤南門通二丁目 迎禧商會

醫學博士 渡邊晉
皮膚(皮膚病一般•整容手術)
泌尿(泌尿生殖器에關한疾患)
性病科(徽毒•淋病•下疳•)
診察時間 午前九時부터午後一時 午後四時부터同七時 (但日曜、祭日은午後四時부터)
京城黃金町二丁目(日本生命ビル東南裏角) 電話本局八九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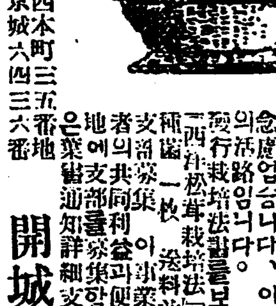
開業宣傳 名刺百枚無料增呈
左記規定에 依하야 無料增呈홈
一、名刺一人分百枚注文時에
一、印章二圓以上注文時에
一、詳細內容은 目錄表請求

水谷彫刻 名刺 印章 專門 京城府黃金町一丁目一四五番地 明心堂 振替京城一二四九二番

最新副業出現

專業=副業으로 最有利한

開城明和園農場



○○아지못하는 商品을 엇지사리오??
알리고저하시거든 廣告하시오!
알고저하시거든 廣告를 보시오!

蠶上面民奮起
公普期成코자大會開催

平南德川郡蠶上面은順川郡鳳鳴面과价川郡外東面과의三郡接境이요正圓形으로峻嶺이圍衛되야六七十里以內에는一個의公私校가無하야數千餘의學齡兒童이草野에彷徨함을慨歎하야面內有志諸氏는昨春에學校期成會를組織하고郡當局에陳情書를提出하는同時에郡當局에委員을派送하야郡守로부터同郡

日下面 다음에는蠶上面沙也市에公普校를設置하여주겟다는快諾을맛고도라온後義捐金을募集하야指示金額의三分의二는積立하고當局計劃의從急을注目中이라는데日下公普는지난四月一日부터生徒를募集하야五月十五日에開學式을行하엿다하며同郡德鳥面에서近日公普期成會를組織하고運動中이라함에對하야

蠶上面 公普期成會에서는昨春에郡當局으로부터位置決定外지斷言하엿스나其間態度를알수업다하야一週日內로面民大會를開催하고更히郡道當局에陳情하리라하며萬一郡當局에서旣定의方針을變更한다하면蠶上面民은限死코猛烈히運動하리라더라(德川)

臨時總會를開催하고協議한結果工場費用을左記와如히定하고六組에分하야每日二組式出席하고午後四時로부터同七時外지三時間을努力하며夜間은會員全部가出動하야整理中이라더라(德川)

◇工事監督 任熊兒 申致孝 宣明玉 文允玉 裴洙鐸 蔡仙玉

靑川에救饑會

忠北槐山郡靑川面一帶에는今春以來로糊口策이업서草根木皮로僅僅히사라오다가農繁期를當하매農糧이업서廢農地境에서離產流離하는이가不少한바이를見한靑川面長宋文用氏는지난二日에臨時饑民救濟會를發起한後當地東亞日報米院分局의後援을바더左記諸氏에게合計百五十圓의同情金을募集하야不日間滿洲粟을購入分配코자淸州邑으로交涉中이라더라

宋文用 東亞米院分局各十圓 沈參燮 南命祐各六圓 張寅皓 朱晋鎬 李重翼 車山淮各五圓 金基應 李榮勳 辛政淳各四圓 朱秉谷 李敎義 辛泰河 李根孝 金鎰濟 柳寅馨 朴桓圭 金文起 金顯世 朴禹鉉 李海林 金顯學 李圭復 朴平國 朴東烈各五圓 南喆祐 趙泰昇 李炯求 宋在勳各二圓 李潤雨外三十五名各一圓(淸州)

翰林少年會運動場工事에
會員一般이努力

濟州翰林少年會에서는從來運動場이업서서會員一般은恒常遺憾으로생각하든바會員이努力하야翰林境內에土地千餘坪을得하야

『훔치』의五大罪惡
巨濟靑年聯盟에서聲討
民衆의產業과敎育에致命傷을준다고痛憤

巨濟島에는近來『훔치』가盛行하야民衆의產業과敎育에致命傷을줌을痛憤히녀기는巨濟靑年聯盟에서는左와如한聲討文을發하얏더라

◇聲討文(全文)

嗚呼라日星이晦하면魑魅이出하고倫綱이斁하면梟獍이橫함과가티社會의局面이混亂하야지니一奇奇怪怪의妖物이出하도다!此妖物의習性이民衆의金錢을善啖하나不可殺도아니요民衆의精神을善魅하나狐狸도아니요民衆의膏血을善吸하나蚊虻도아니엇스며그形體는鮮明의顏字에官職을背景하고宗敎를假面하야魔手千百으로奪하기難하며毒牙槍劍에銳하니其名은普天敎요(幼名은太乙)綽號는훔치라此妖物의略歷을一考하면距今十六年前全北古阜에姜一淳(所謂甑山)이란一妖漢이出現하야荒誕怪說로써世人을迷惑케하더니其後一班黨餘孽인車京錫爲名者가그妖術을繼承하야더욱더욱狹雜輩를嘯聚하고魔術軍을蝟集하야今日의猖獗에至하얏도다그彌天의大罪極惡을一一히枚擧하기張遑함으로左에그大綱만을紹介함

◇

一、彼輩는虛無孟浪한君主說을唱導하야時代의覺醒을阻害한다우리民衆의一部는鄭堪錄을迷信하는者가잇다彼輩는此弱點을利用하야來世는鄭氏가登極할터인되車哥는그母가鄭哥에奸淫하야生한子卽鄭氏의王될者라하야詐欺의道具를만든다

◇

二、彼輩는靑天白日虛字格의官爵을密賣하야民衆의金錢을騙取한다우리民衆의一部는官官熱이膨脹하야虛無한參奉貼紙主事狀旨에幾十圓을不惜하는卑劣한虛榮心이잇다彼輩는此弱點을利用하야八任六任六十方主監察正卿十二道總督七十二諸侯等上으로內閣下로面長外지直賣或擬賣하야民衆으로하야금敗亡에歸케한다

◇

三、彼輩는謊譴無稽의神通說을妄吹하야民衆의精神을迷惑케한다우리民衆의一部는浮 法을迷信하는者잇다彼輩는此弱點을利用하야此世가換局되라면鄭氏가登極하자면他의努力圈內를버서나야할것인데우리에게는이만한武力이업스니外不可不呼風喚雨之術과遁甲藏身之法이아니면안된다그런데車哥는임즉부터此等術法에精通한偉人이라하야民衆을疑惑케한다

◇

四、彼輩는現의敎育을否認하야民衆을愚昧케한다우리民衆의一部는削髮을忌避하며新敎育을超越한다彼輩는此弱點을利用하야會連成山云云의奇怪한說之說로外科學의進步를沮害한다此는無他라敎育은覺醒을意味함이다彼가盜月色을忌避함과가티民衆이一旦覺醒하면彼險凶의正體가餘地업시暴露될줄을豫測함으로서라

◇

五、彼輩는玄玄蒼蒼의宿命論을鼓吹하야民衆의膏血을搾取한다우리民衆의一部는陰陽運數說을迷信하는者잇다彼輩는此弱點을利用하야人間萬事는모다運數의所關이니家庄을放賣하고米帛을放賣하야도致誠만하면大運이回來하는날에는(甲子四月甲子日이지나니乙丑四月乙丑四日이또지나니後甲子를맘할지오)土地家屋이모다우리의共有오富貴榮華도모다우리의獨斷이라하야民衆으로하야금蕩敗家產하야流離丐乞하게한다此外에도怪瘁云云荒唐說天祭云云大詐欺術ㅣ참實語道斷이다

아!이毒液에注射된民衆들아魔術에夢昏된民衆들아精神좀차리어라覺醒하여라諸君의가는곳은滅亡의深淵이며諸君을誘惑하는者들다ㅣ吸血鬼의魔手며走狗輩다!試問하노라諸君아千辛萬苦로開拓한土地粒粒皆辛苦로收穫한米豆絲麻뭇髮白으로織出한布帛을웨송두리채파라그妖怪의料理를만드느냐?諸君의身勢는自作孽이라그만이거니와高堂白髮과膝下幼稚는엇지하라나?諸君아精神차리여라覺醒하여라아!義憤이잇는民衆들아鐵拳을가진民衆들아一頭의猛獸가跳出하야一人의生命을危篤케함을볼에우리는顧之跳之躊之躇之할것이며尺劍의强盜가侵入하야一家의財產을奪取함을볼에우리는枝之棒之追之逼之할것이아닌가항물며人面鬼卒輩가數萬同胞의精神을痲痺한後그鮮血을吸取함을볼에는웨義憤이업는냐?鉅萬의財產을蠶食함을보고도웨鐵拳을애기느냐?『一葉落而知天下之秋』로그네의죽음은곳우리의죽음이요그네들의破產은곳우리의破產이다우리의腹背에吸血鬼와寄生虫을붓처두고엇지一時나마安心하랴?義憤이잇는民衆들아鐵拳을가진民衆들아義憤鐵拳이야말로魔障一無의降魔劍이다拔劍이때다本聯盟은正義의先鋒으로먼저討伐의一檄을傳하고繼續하야根本的撲滅을公約하노라

一九二五年五月 日

巨濟靑年聯盟

陝川儒林의疑雲
涵碧樓所有問題

陝川邑南汀江北岸에잇는涵碧樓는古來로一地方名勝으로잇든바大正十年頃에이르러거의頹敗하얏슴으로當時의陝川郡守李章喜氏는地方有志와一般儒林의贊成으로그樓를重修하고同時에儒林財產의處理方針에對하야도若干의指導的方針을取하얏든바儒林의金錢으로써陝川郡陝川面西山里에畓八斗落을買受하얏다하며翌年에李章喜氏는金海로榮轉되얏슴으로이로부터地方의一般儒林사이에는一大疑問이發生하야或은儒林의財產으로써涵碧樓에寄附한結果그돈으로써涵碧樓維持方針으로畓八斗落을買受하얏는데到今하야는그土地는간곳이업다고街論이紛紛하며그反面에는涵碧樓는儒林의金錢으로重修한結果그樓는陝川儒林의所有가되고말엇다하며이에對하야現在의陝川郡守黃潤東氏는말하되涵碧樓에對한事에는大陽面長鄭震埃陝川面長李楨南氏가잘알거니와樓는依然히國有로잇슬뿐이며그外李郡守는儒林을指導할연일러임으로買受한土地는涵碧樓와는何等의關係가업나儒林에서有司들이處分하얏슬뿐이엇슴으로그의詳細한것은儒林의帳簿를보기前에는明言키어렵다더라(草溪)

原州靑年總會

江原道原州靑年會에서는去七日午後一時에該靑年會館內에서臨時總會를開催하엿는데會長安允玉氏司會下에諸般事項을決議하고午後十時頃에無事閉會하얏다더라(原州)

咸南春蠶良好
飼料不足이憂慮

咸南道今年春蠶의掃立枚數는三萬七千二百三十九枚로昨年의三萬七千八枚에比하야百三十一枚가多하고收繭豫想額一萬五千九百六十九石으로서昨年의實收額一萬四千二百三十九石에比하야一千七百三十石의增繭豫想이라한다然한대蠶兒의發育狀況은甚히良好하나桑葉의伸長은發芽以

來氣候不順으로成績이良好치못하야安邊陝川에除하고는一般이不良하야各郡이桑葉不足의處地가不無하다더라(元山)

吾也講習會發展

慶北醴州郡川北面吾也里普成講習會는同昨年에同面文永翰氏의努力으로創設하얏는데其間學生이多數하야敎師가되야熱心으로敎授하얏든바今年에同面文化의機關이乏한者을慨嘆하야地方不少한貢獻이잇든바同講習所는敎室이狹隘하야每日增加되는學生을收容치못하게되얏슴으로百餘圓의金額으로써敎室을新築하고去五月三十一日에落成式을擧行하얏는데觀覽者가數萬에達하야大盛況을呈하얏는바當日特히講習所를爲하야寄附한諸氏는左와如하다더라

孫晋煥十圓 文永翰 黃鶴永各五圓 李起文四圓 金容俊 李集永 李源震 朴永祚各三圓 孫祀贊 金成鐸 黃鶴永 全從祥 黃鶴林 並聖壽 李起一 權昌奎各二圓以下略(醴州)

軍威에敬老會
盛況裡에散會

慶北軍威郡台保面에서는七十以上에게敬意를表하기爲하야去一日午前十時頃에同面所內에老人六十名을招待하야慰勞會를開催하엿는데老人一同은詩題를提出하고作詩를하며其外諸種의遊興이잇서盛況裡에同午後四時頃에散會하엿다더라(軍威)

永興衡平總會

咸南永興郡衡平分社에서는去六日午前十一時에同郡順寧面大黑里金鎰敎家에서臨時總會를開하고本部西北巡回委員金士琠氏의司會下에左의事項을討議決議한後同十二時半에閉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五相親睦과團結相助의件
一、義務敎育의件
一、不正社員處置의件
一、社員中疾病死亡에對하야三圓을慰安金으로與할일
一、總會出席에關한件
一、任員選擧의件(永興)

沙等里에幼稚園
耶蘇敎會經營으로

慶南巨濟島沙等面沙等里耶蘇敎會에서는去二日부터同禮拜堂內에幼稚園을新設하고保姆로馬山義信女校出身權點時孃을請聘하야어린이三十餘名을目下敎授中이라는데成績이頗히良好하다더라(巨濟)

原州에서體育會創立

江原道原州郡에서는本來부터體育에對하야完全한機關이업슴을遺憾으로생각하여오던中去七日에推選하고、安使成氏의發起로原州體育會創立總會를本社支局內에서開催하고臨時議長安使成氏司會下에一般會規를作成하고左와如히任員을選定하얏다더라

會長徐丙仁 總務安使成 會計兼庶務朴夏淳(原州)

養蠶家의困難
山桑採取禁止로

平南价川郡外東面吉祥里一帶의蠶業家는在來의土村付山에는在來桑이豐富하야附近蠶業家는大概其山桑을摘取하기에大混雜을成하든바今春부터는往友會社와所管營林署와相議한後其在來桑을元居民에限하야採用케하엿슴으로附近住民은給桑不足으로一大困難中이라더라(德川)

寧邊에서少年少女歌劇
盛況裡에閉會

去九日夜에寧邊엡웟靑年會主催와東亞、每日、朝鮮各新聞支局後援으로西部洞美監理敎禮拜堂에서少年少女歌劇大會를開催하엿는바今番에上演한脚本은金敬湜、鄭道熙氏의創作이엿섯고舞臺와이밧게諸般設備는在來의舊套를脫却하야面目이一新하엿슴으로當日雲集한五百餘名의群衆에게多大한歡迎을바닷는데當場에서아래와가튼同情이잇섯다더라(寧邊)

平野○產銀行支店長五圓 田又澤武四圓 洪在顯武圓 韓周 金昌洙 田炳澤 朴泰鳳 金興洛 金錫琪各壹圓

松高校選手權大會

開城松都高等普通學校에서는去十三日午前九時부터同校運動場에서同校第一回校內陸上競技選手權大會가有하엿는데競技課目은徒步、投槍、圓盤、高跳、走幅跳、砲丸等으로同五時頃에閉會하얏다더라(開城)

東明校寄附金
募集에着手

安州郡東面龍興里東明學校는距今十八年前에創立되야그동안만흔英才를養成하여오든바東面은戶數一千百餘戶에就學치못하는學齡兒童이만흔것을그學校當局者들은크게遺憾으로생각하야校務를一層擴張하며校舍를增築키爲하야去五月二日에安州面東面一圓에서寄附金三千圓募集을平南道當局에出願하엿든바지난六月四日米田知事로부터代表者李昌重氏名義로許可가되엿슴으로寄附金募集에着手하리라하는데一般有志로부터만흔援助가잇기를願한다하며募集委員氏名은아래와갓다더라

李昌重、裴永鎬、金龍瑞(安州)

三源浦에서李氏講演

天道敎中央宗理師ㅣ開闢社主幹李敦化氏가南滿宗敎狀況을視察키爲하야去月二十五日에興京에來到하야二回나講演하고가잇섯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지난二日에는柳河縣三源浦東明學校와다른靑年會主催로當地東明學校講堂內에서第三回講演會를開催하고輪敎籍氏司會下에熱烈한熱辯을吐하야三百餘聽衆에게만흔늣김을주고大盛況裡에同下午八時에散會하얏다는데氏는本社興京支局長玄昌浩氏와同伴으로漆天을向하야出發하엿더라(興京)

車輦館에脚戲會
市民主催로

京義線車輦館市民과靑年會主催와東亞本報、車輦館分局後援下에오는端午佳節을機會로脚戲大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方今大大的으로準備中이며本報車輦館分局에서는觀衆과讀者諸位의便利를圖키爲하야脚戲會場에加設棧敷를建設할計劃이더라(車輦館)

音樂演奏會와
熱狂된聽衆

宣川郡內保聖女學校에서는同校生徒들의主催로去十一日午後八時에南敎會堂에서音樂會를開催하엿는바彈琴한風琴獨奏와피아노四部合唱가튼處女들의隱帶로울려나오는獨唱에心醉한聽衆의熱狂的歡迎속에同十時頃에閉會하엿다더라(宣川)

化西面의救濟

尙州郡化西面에서는麥嶺을當하야餓死에至한同胞를救濟하기爲하야去五月頃에面內有志諸氏가當面事務所에會集하야對策을協議한後當席에서아래와가튼金品의同情이잇섯다더라(尙州)

◇穀物

鄭瀾馥正租四石五斗、金相協同四石二斗、盧鳳植同三石五斗、黃大源、權仁榮、同三石三斗、李熙雨同三石、盧敬一、盧敬弘同二石、陸鍾卓、權羲榮、李碩雨各同一石六斗、辛田又治、姜十郞同一石四斗、松野銀弘植、尹世宗、陸鍾永各同一石一斗(以下九十二人으로一石以下는略)

◇金員

盧錸衍四十圓、畑地耕民十圓 稻葉勝次郞八圓、李琬儀五圓 盧炳龍五圓、鄭東變三圓、李崇植三圓 桶口彦次郞、桶口作藏 脇田鶴吉各一圓式 合計穀物六十二石四斗金員五十一圓

海印寺探勝團

本報俠館支局主催로 本報俠館支局主催로今般伽耶山海印寺探勝團을組織하기로하고方今團員을募集中이라는데旅費는來二十、二十二日兩日間自轉車로往復할터이며會費는一人三圓五十錢이라는바團員은二十人限임으로希望者는速速參加하기를바란다ㅣ라(俠館)

咸從에도脚戲
來端午日에

江西郡咸從市民主催로例年과가티今年端午에도脚戲大會를開催하리라더라(江西)

衡平義捐續出
本部事務所를建築키爲하야

市內臥龍洞에事務所를둔朝鮮衡平社中央總本部에서는本部事務所를建築키爲하야巡廻委員을各地에派하야義捐金을募集中이라함은旣報한바어니와六月十一日外지本部에들어온金額總計가八百十八圓인데醵出한이의芳名은如左하더라

三百圓鴻川分社員一同▲百圓洪城分社員一同▲六十圓泰安分社▲三十圓廣川吉倘同▲二十五圓廣川金鎬福▲二十圓海美李西分社夫人、瑞山李昌雲▲十五圓瑞山李弼成、唐津金益贊、廣川李鍾南▲十圓元山邊鍾文、廣川李允萬、元山金允河、永興李龍達、海美李春迪、李花實、海美朴俊敎、于判孫、泰安李判達、李田福▲五圓瑞山李萬俊、李成根、趙壯元、唐津李鍾石、海美李伊石、李克玉、元山白雲起、金鳳吉、金學呂、廣川吉秋同▲七圓廣川宋松泰(以下略)

運動會와同情金
冠東講習會의發展

聞慶郡加恩面冠東講習會에서는去五月三十日該講習所運動場에서春季大運動會를開催하엿는데當日觀衆이八百餘名에達하야豫想外의大盛況裡에五十餘種의運動種目을順次進行하고午後三時三十分頃에冠東學院萬歲三唱으로無事히閉會하얏는데當日運動會에爭先義捐한諸氏의芳名과金額은左와如하다더라(尙州)

成水康二十一圓 錢長善二十圓 申成烈八圓 金在龍 金鍾勳 金東元 金永駿 洪鏞 金鴻翼 金慶玉 李錫柱 趙道泳 時興各五圓 金相河 趙命九 朴 李永錫 黃命周 梁學伊 朴圭哲 金濟永 林 裁雨 寺地小太郞各三圓 金 數元 鄭雲夏 權泰永 李七 用 趙南柱 金東夏 金東烈 朴鳳秀 朴應和 張相漢 韓 癸東 李春宰 金堯漢 申太 午 松崗燮藏 朴任俊 宋在 德 金錫永 申鉉基 徐永錫 尹鵬伊各二圓 李鳳熙 李廷 琓 金鍾律 朴永模 吳士 晉 金鳳漢 李根成 李丙德 李丙訥 申鉉才 鄭漢永 鄭 東昱 安岡善晴 申又燮 黃 道吉 李璣熙 金鍾泰 金昌 漢 田相鳳 金鍾順 金海永 申學均 安成楨 蔡漢郁 鄭 在湖 朴重和 鄭岱淋 金瑛 潤 許命九 蔡亨濟 李赫宰 各一圓 蔡鼎錫五十錢 李起 喆一圓 李廷石一圓五十錢趙 大韓參拾圓(尙州)

五山校寄附金과
龜城人士의熱情

定州五山學校敎員舍宅及學生寄宿舍增築을爲하야今般龜城地方에서寄附한人士의氏名과金額은如左하다더라(龜城)

李益鎰 金觀恒 洪時玉各五十圓 張景辰 崔俊宅 許益烈各三十圓 鄭汝稷 金龍諾 崔仲彬 崔致奎 洪時爾各二十圓 金珍基 許益秀 康德璜 崔致興各十五圓 金鼎鉀 鄭炳輝 鄭其吉 鄭再淸 金鐵權 全恒鍊 金觀熙 全永贊 金鵬鉉 金觀會 金觀潤 鄭錫禹 鄭錫麟 裴贊道 李

汗浦脚戲大會

京義線汗浦里에서는市民主催로陰五月四、五兩日間에脚戲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方今大大的으로準備中이며場所와賞品은如左하다더라(汗浦)

一、場所 汗浦驛在所前運動場
一、賞品 大人一等一人農牛一頭 二等一人廣木一疋 三等若干人白木一疋洋傘一介式 四等若干人白木一疋式其他 總角一等一人農牛一頭 二等一人白苧一疋 三等若干人白木一疋式 四等若干人洋傘一介式其他

學藝庭球蹴球
安州靑年會主催로

咸南豐山郡安水面에在한安水靑年會에서는來二十二日부터二十三日外지二日間學藝品展覽會及庭球蹴球大會를左記와如히開催한다는데出品及參加團體가多數할豫定이라더라(豐山)

◇學藝品展覽會
一、日時 六月二十二日午前八時부터
一、科目 圖畫、習字、作文、手工 但出品點數는隨意로함
一、場所 豐山郡安水面安成學校內

◇庭球
一、日時 六月二十二日午前十時부터
一、一組 六組로함
一、參加金 一圓
一、賞品 一等優勝旗一竿 二等庭球一打
一、場所 豐山郡安水面安成學校코ㅣ트

◇蹴球
一、日時 六月二十三日午前九時부터
一、場所 豐山郡安水面安成學校그라운드
一、團別 少年團、靑年團 但少年團은身長五尺外지
一、一團十一人候補二人
一、參加金一圓
一、賞品各一等優勝旗一竿 各二等蹴球一箇(豐山)

夫人會가節婦褒賞

釜山府草梁洞夫人會에서는去七日私立普通學院內에서節行者의褒賞式을擧行하얏다는데授賞者와賞品은如左하다더라(釜山)

節婦 李明信(五三) 銀指環
節婦 李雙伊(五二) 銀指環
節婦 朴甲年(五〇) 銀指環

尙州春繭共賣

蠶業地로全朝鮮에有名한尙州에서는去四日부터春繭商共同販賣를始하얏다더라(尙州)

◇寸鐵◇

【德川】蠶上面長吳某는別號를가젓다한다 하나는몰르는일도아니는데한다고『데面長』自己보다上級사람에는반드시갈비(牛肋)를待接한다고『갈비面長』이라고한다 이만한別號가둘식이나되면 面長으로는훌륭한資格

◇

【海州】海州圖書館은開館當日에 日本小兒들이 야단을치더니날이오래니가 日本大人이소리를하고 야단을쳣다 自己들의遊戲場은아닐터인데

◇

【公州】近日에는『훔치』상투쟁이들이 本町酒食商業하는집에看板을부처노코 每日외상밥을먹으며 將基두기가消日인데리의집에는債鬼組合이잇서每日長鼓소리가굿칠사이가업서 그들은慰安이된다고 大時國에比하야滋味가如何

三郡少年個人庭球大會

時日 六月二十六日午前十時
場所 廣州郡中垈面松坡公普校
參加區域 廣州、高陽、始興
參加資格 身長五尺一寸五分以內
參加金 每組五十錢
申請期日 六月二十一日以內
主催 朝鮮日報松坡支局
後援 廣州靑年會

第二回平安靑年少年蹴球大會

時日 六月二十日、二十一日兩日間
場所 博川邑內
參加資格 靑年選手十一人後補二人 少年選手十一人後補二人(身長五尺以下)
參加金 靑年三圓 少年二圓
申請期日 來十七日外지博川南湖團事務所內
主催 博川郡南湖團
後援 博川市民一同、東亞日報博川分局、朝鮮日報博川支局

松坡修養會創立

去九日下午九時에廣州郡中垈面松坡禮拜堂內에서張憲氏司會로松坡修養會創立總會를開하고尹普榮氏의趣旨說明이잇슨後諸般事項을圓滿히決議하고郭應大氏의祝辭로同十一時半에閉會되엿는데役員은左와如하다더라(松坡)

會長 張憲植 總務 尹昌文 司察 朴守命 金鳳九 柳五均 宋正楠 郭一俊 張喜男 趙昌奎 書記 鄭根成 李泰成 相聽役 尹普榮 郭應大

成奎 崔基龍 洪時明 崔寬浩 崔俊植 沈有文 崔德成 朴德林 崔日星 張龍官 元龜湘 洪官玉各十圓

幼年主日創立祝賀

開城北部禮拜堂內幼年主日學校에서는同校創立紀念式兼花主日祝賀式을去十三日下午八時半부터同敎會內에서開催하엿는데華麗하게粧式한場內에少年男女의趣味잇는遊戲와歌曲等이잇섯스며來賓側으로는金成玉氏의少年少女에對한特別講演도有하엿더라(開城)

玉帶義塾舍新築

慶北榮州郡丹山面玉帶里는東西各一里伴許에公立普通學校가有하나交通이不便하야當地通學生은不過幾名이요敎育機關이라고는面內完全한私塾一個도無하고但히玉帶義塾이有하든바此亦諸般形便에依하야閉塾에至함을同里金仁培氏가慨歎하야自己가各洞里를訪問하며外若干의金錢或物品賦役等의補助를受하야同里前空地에塾舍를新築하는中임으로一般은稱頌不已한다더라(榮州)

通信員卒業

元山局通信員養成所의本年度卒業生은十二名으로本月十二日午前十時부터卒業式을擧行하얏고또同所入所式은來二十五日豫定이라더라(元山)

六月拾參日土曜부터二大名畫提供
米國兄다구라스氏主演 喜活劇 낫 드 全六卷
黑裝兄다구라스페밤스氏主演 大名畫 로빙훗드 全十一卷
映畫中에잇든二大名畫그여히今回의「스크린」에나타나이다
日活特約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大活劇 三銃士 全十二卷
大유나이뎃드社超特作品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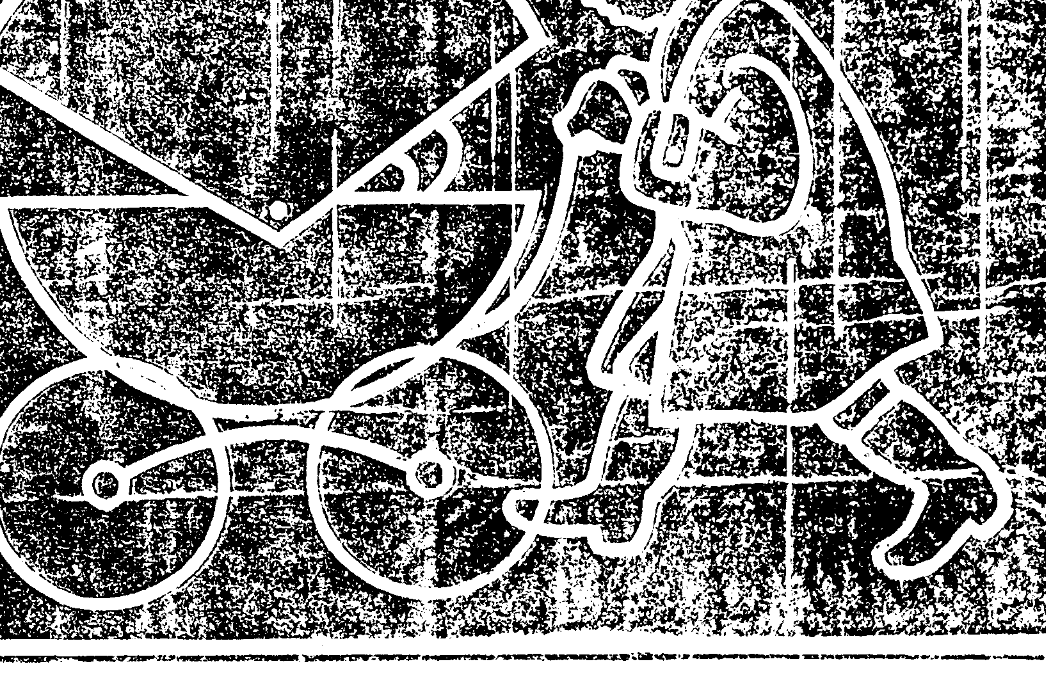
當六月十三日◇特別大興行◇
유社作品 로이스타와ㅣ드氏主演 探偵連續 電波王 全十編二十卷 第二回 第三第四編 四卷上映
유社作品 레자를ㅣ도데ㅣ니氏主演 拳鬪活劇 拳鬪王 全六編十二卷 第二回 第三第四編 四卷上映
유나이뎃도社超大作 리리안깃수孃主演 問題의大名畫 國民創生 全十二卷
松竹유社特約 團成社 電光九九五番

當六月十四日(日曜晝間)부터 特選二大名畫提供
◎米國파라마운트社特作 戀愛活劇 노치마라 全八卷
◎유나이데쓰드社大特作品 名作 벳히이폴고숭孃主演 大悲劇 嵐의孤兒 全八卷
名星 리리앙키쓰 도로시기쓰 姉妹兄弟共演
유社特約 第一館 平壤水玉里

家庭職業
收益確實 保證
舶來品以上의優等品 筆年中無休無不景氣 知의內地輸出販路 無盡藏子孫繼續 自手로잇는안業에게 全機械製作業 兒童至便 近不偶自宅職業 家庭永工業으로最適 製品久實任利益多
大阪梅田出入 浪速製作所 振替大阪一三三七番

●情交의研究珍書!
●性學大家澤田順次郎先生新著
圖解 男女 生殖器 詳解
及性交法의研究 疾病自宅療法

空前의秘書……지금外지남에게듯고십고배고십허도듯지못하고배지못하든、男女生殖器의構造로부터、機能、生理의全般及交法▼避妊法▼姙娠의實際▼避妊의研究를누구나알기쉽도록詳述
한珍書이라「生殖器病自宅治療法」을附하야 感減少▼交接不能▼神經衰弱▼早漏▼梅毒▼子宮病▼淋病▼陰萎▼遺精等을남모르게속히治療할수잇습니다
‖허켜쓰는긔冊이안이라‖
◆菊半五〇頁 ◆特價金壹圓廿錢 ◆箱入
希望者는新聞名을記入하야業書로〔セキ〕送하라고請求하시면代金引換으로도密送함(代金引換送料廿五錢前金注文送料七錢)
東京麻布富士見町六 振替東京四九八四 正文社

가루우유
ラクトーゲン
粉末純乳
라구도ㅡ겐


장마철과 胃腸障害
장마비가나릴째가되엿슴니다運動不足으로하야서榮養不良이되야活潑한子女들도胃腸을害하기쉬운危險한장마철이되엿슴니다!
特히抵抗力이弱한乳兒의哺育에는特別한注意가必要함니다
滋養豐富하고純粹新鮮한乳素『라구ㅡ도겐』은湯水만잇스면即座에新鮮하고조흔젓이됨니다
見本說明書는請求하시면進呈함

慈善一束